朝鮮日報
八日夕刊四面
編輯發行人 林景來
印刷人 朴昌根
發行所 京城府堅志洞 朝鮮日報社
代表電話光〔光〕二三〇〇番 振替口座京城五八七八番

世界週史 送舊迎春

經濟的으로는 恐慌의 深刻化 政治的으로는 그 反映인 戰債問題等을 中心으로 한 歐米列强間의 對立 그리고 日中問題를 中心으로 한 極東問題等 實로 多事多端든 一九三二年은 永遠히 흐르는 時流에 흘러가고 새로히 一九三三年은 雄壯한 「닭」의 喊聲과 가티 왓다 「메라크리스마스」의 祝賀聲과 「謹賀新年」의 唐聲로 온 世界의 經濟的 政治的 舞臺는 新年에 平和속에 잠든 듯 고요하야 그러케까지 喧騷하든 國際舞臺와 列國政廳도 자못 寂寞한 感이 不無하엿다 러나 一月二日의 山海關의 大砲聲은 다시 一九三三年의 混亂의 兆徵을 暗示하고 日中紛爭은 다시 世界의 耳目을 끌게 되엿다

山海關事件

日中兩國의 紛爭을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질려고 하든 十九國委員會는 當事國의 妥協條件 絶對反對로 年末休息이 되야 實드 조커니와 一月十六日外지 休會하기로 되고 兩國代表의 演說戰도 一時停戰이 되엇섯다 그러나 極東現地에 잇서서는 張學良과 北方將領軍事會議와 國民政府의 對日强硬策 十六日 內實施等等하야 熱河方面을 中心으로 한 空氣가 매우 險惡하고 戰雲이 매우 濃厚하야 情勢가 매우 不安하더니 突然新年劈頭에 山海關事件은 勃發되고야 만 것이다 그 責任을 日本은 中國에 잇다 하고 中國은 日本에 잇다 고 하야 各自相異한 主張을 하고 잇스나 그러나 結局의 原因의 所在는 滿洲國을 中心으로 한 兩國의 利害關係의 根本的 對立에 잇다 事件發端의 直接契機는 엇더케 되엿든지 事實上 日本은 山海關을 占領하고 暴戾何柱國은 一步退却하면서 一方張學良은 軍隊를 北方에 續續集中하면서 다시 日本軍에 對抗하려는 氣勢를 보이고 잇다 蔣介石은 張學良을 援助할 뜻이 또 一邊은 張의 失敗를 指摘함으로써 北方의 張學良의 系統을 이 機會에 改編할 意向을 가지고 張을 詰難하는 態度를 보이면서 잇스나 이 中에서 日本軍의 强力한 軍勢에 依하야 萎縮되고 不道德한 中央의 無援한 孤地에 서 잇는 張學良이 엇더한 길을 取할는지는 實로 前途難測이다

綴字統一其他

한글綴字法의 不統一은 朝鮮社會의 一大問題이엿다 昨年年末에 朝鮮語學會가 綴字統一會議를 開城에 開催하야 一月四日에 統一基礎案을 作成하고 不遠에 修正委員會의 修正을 거처서 近近發表되리라 하니 朝鮮文化史上의 特記할 重要事實이다 그러나 如何히 조흔 案이라도 實行을 못하면 空案이다 한글不統一에 困難을 當하고 잇는 朝鮮民衆은 맛당이 一致하야 實行할 勇氣를 가저야 할 것이 아닌가

開城에는 한글綴字法總會가 잇는 以外에 金貞惠女史의 社會葬이 잇섯고 年末에는 安島山의 四年懲役判決이 잇섯다 金貞惠女史는 少年寡婦로 일즉이 啓蒙事業에 뜻을 두고 一平生을 敎育事業에 마친 立志傳中의 人物이다

十九國委員會는 一月十六日에야 開催되고 日本의 議會도 今月二十日에 軍縮會議도 今月末에야 續開된다 今月當分間은 山海關事件의 進展이 注目處이고 그 밧게는 各國의 非公式交涉戰의 暗中飛躍이 豫想되나 表面에 나타날 世界的 事變은 別로 업슬 것이다

韓閻其他諸將領等 抗日決意를通電

于軍은山海關奪還을企圖

北中形勢依然暗澹

【北平六日發電通】 張學良의 前線補充에 依하야 事態緊張을 加하고 抗日氣運이 濃厚化하고 잇는데 六日北中將領(閻錫山 徐永昌 傅作義等)은 張學良에게 一致하야 死로써 抗日의 決意를 通電하얏다

【天津七日發聯合】 山東省主席韓復榘는 今回東北軍援助라고 稱하야 部下軍隊를 北上케 할 旨를 七日張學良에게 報告하야 왓다 또 閻錫山其他도 同樣抗日로 이러설 것을 請願하고 孫傳英은 벌서 二個師團을 保定外지 移動할 計劃을 세우고 잇다

【山海關七日發電通】 于學忠軍은 學良의 命令으로 山海關奪還을 期하고 長城의 北方을 迂回하야 前面으로 나서 日本山海關占據部隊의 後方退路를 斷絶코자 하고 잇다는 情報가 잇서 城內의 中國人은 戰戰兢兢하고 잇는데 于學忠은 近近山海關을 攻擊할 터이니 中國人은 모다 避難하라 命令하엿다는 傳言이 생겨 續續海岸方面으로 避難하는 中이다

【山海關七日發聯合】 于學忠軍은 張學良의 命令을 受하야 山海關을 奪還코저 長城北方을 迂回하야 前所에 出하야 日本軍山海關部隊의 後方連絡을 遮斷하려 하고 잇다는 情報가 잇고 一方山海關城內의 中國人間에 도 于學忠軍이 近日山海關을 攻擊함으로 中國人은 全部避難하라고 命하얏다는 流言이 傳言되야 海岸方面에 避難하는 者續出하고 잇다

다려 臺灣敎育令改正案의 審査委員에 併記하야 審査를 開始할 方針이다

武力對抗은勿論 ◇……張學良代表豪語

【南京七日發電通】 七日朝入京하야 蔣介石等과 山海關問題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行한 張學良代表 鮑文越은 記者에게 다음과 갓티 말하엿다

山海關事件에 對하야는 뭇외지 武力抵抗을 할에는 萬全을 期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임으로 予는 南京에 常駐하야 蔣張間의 連絡을 圖謀하게 되엿다 日本의 局地解決은 時代의 輿論을 瞞着하는 手段에 不過한 一笑할 價値조차 업는 것이다 學良이 日本과 局地的 解決交涉을 한다는 말은 全然無根之說이다

對日急進論의先鋒 『마』西班牙代表辭職說

越權하야排日意見發表햇다고

【倫敦七日發電通】 當地外交界에서 閑知한 바에 依하면 西班牙의 國際聯盟代表 『마다리아가』氏는 客年十一月、十二月日中紛爭에 關한 國際聯盟會議에서 西班牙政府自身은 日本과의 親善關係를 保持하고자 하는 希望을 가지고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政府의 意志에 反하야 越權的으로 排日的 意見을 發表한 뭇으로 政府의 叱責을 바다 國際聯盟代表及駐佛西班牙大使의 地位에 對하야 辭表를 提出한 것이라고 解聯되바 그리고 氏는 近近佛國以外의 國의 大公使任命되야 日中紛爭問題에 關한 審議가 再開되는 時는 現西班牙外相 『술에탈』氏自身이 西班牙代表가 될 것이라고 豫期되는 바 只今西班牙政府로부터 『마다리아가』氏가 叱責된 事情을 듯건데 昨年十一月末頃 日中紛爭問題審議가 方酣하얏슬 當時 『케네바』에 잇는 英佛二大國의 代表는 秘密히 『마드릿드』政府에 對하야 『마다리아가』氏가 以前 오랫동안 聯盟役員이엇든 것을 利用하야 諸小國聯盟의 가장 活動的 『리一더一』의 一人으로 策動하고 잇다고 抗言하얏든 바 西班牙政府는 閣議結果 『술에탈』外相을 『제네바』에 派遣하야 『마다리아가』氏의 行動이 越權的인 것을 밝하야 叱責하고 十九個國會議가 開會中임에도 不拘하고 巴里로 歸還식힌 것이라고 傳한다

朝鮮敎育令 臺灣과同時審議

【東京七日發聯合】 臺灣敎育令改正案은 이미 樞密院審査委員에 附託되어 잇는데 이것과 갓치 朝鮮敎育令도 改正하기로 하야 目下當局에서는 立案中이다 樞密院으로서는 拓務省의 希望에 依하야 朝鮮敎育令中改正案의 御諮詢을 기다려 臺灣敎育令改正案의 審査委員에 併記하야 審査를 開始할 方針이다

英東洋艦隊司令官 日中停戰斡旋提議

好意는感謝하나事實上不必要라고

山海關軍部回答發送

【錦州七日發電】 六日夜英國東洋艦隊司令官은 日本第二遣外艦隊司令官津田少將에 對하야 日中의 停戰을 斡旋하겟다는 通牒이 잇섯다 이에 對하야 日本山海關軍에서는 協議를 한 結果 七日朝 그 뜻을 承知함과 同時에 如左히 附加하야 誤解치 안토록 하엿다

日本軍은 三日午後以後事實上停戰하고 잇섯다 그러나 中國側은 아직도 戰鬪의 用意를 取하고 잇는 고로 停戰勸告는 中國側에는 必要하나 日本軍에는 그 必要가 업다 貴官의 厚意는 感謝하나 日本軍에게의 提議는 無意味하다 日本軍은 居留民의 保護守備隊救援을 爲하야 出動하엿고 그 目的을 達하엿기 때문에 中國側이 攻勢에 나오지 안는 限日本軍이 積極行動을 取할 必要는 업다

熱河出動 日本軍○○團

鄭軍에備코저

【山海關七日發聯合】 一兩日前부터 山海關의 背後에 迫倒하고 잇는 鄭桂林은 關內東北軍과 緊接한 聯絡을 取하고 山海關襲擊을 企圖하고 잇서 日本軍은 右情勢의 追에 鑑하야 ○日○○부터 ○○○團이 熱河省에 出動 近日山海關에 到着할 豫定이다

東北軍內部에 反張空氣濃厚說

【天津七日發聯合】 山海關秦皇島方面의 形勢가 小康狀態에 드러가는 同時에 張學良軍의 內部抗爭이 暴露되야 今回事件의 直接指導者는 張學良인 것이 判明됨에 이르러나 即張學良直系者로부터의 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張學良도 第三次中央執監全體會議의 認識不足과 抗日勵由에 驅迫되야 何柱國을 免職하고 劉參謀長에 對하야 國事的으로 日本軍에 抵抗하라고 電命하얏다 그러나 事件이 擴大하야 兩軍의 交戰에 依하야 事態가 不利하게 되자 張學良은 狼狽하야 고 또 何柱國을 다시 봄니 强制的으로 이에 對하게 하얏스나 이 미 는 켜 事態는 收拾할 수 업게 되야 이 石河線에 退却하게 되엿다 이로 因하야

國府軍事當局 長江各要塞에 待機命令을發布

【南京七日發電通】 確聞하면 國民政府軍事當局은 日本이 長江沿岸에서 事件을 惹起하려고 하고 잇는 理由로 七日長江各要塞에 待機命令을 發하얏다

積極抵抗意見一致

蔣介石等의協議結果

【南京七日發電通】 蔣介石은 七日朝九時歸京하야 軍官學校에 羅文幹、朱培德等要人을 招致하고 山海關事件에 對하야 協議하얏다 張學良의 代表로 七日朝着京한 鮑文越도 參加하야 中央의 援助를 求하엿슴에 對하야 張學良을 一層督勵하야 徹底的으로 抵抗식히기로 意見이 一致되고 同時에 軍費彈藥支給을 考慮하기로 決定하엿다

佛國政府當局 對日態度硬化?

【巴里七日發電通】 佛首相 봉쿨氏는 外務次官某氏와 數日來頻繁히 密議하고 잇는데 이것은 十六日의 十九國委員會에 約十五條四項으로 處理할 것을 强硬히 主張하려는 英國의 協議라고 觀測되는데 佛國의 一般輿論은 이 佛國當局의 態度强化에 反對의 氣勢가 明白하다

山海關中立案에 天津駐屯軍反對

◇時機尙早를理由로

【天津七日發電通】 最近傳하는 山海關中立地帶設置案에 關하야 天津駐屯軍은 如左한 硬論을 固持하야 反對하고 잇다

日本軍은 暴戾한 山海關의 敵을 掃蕩하고 其後監視를 繼續하고 잇는데 現在中立地帶를 設置함은 時期가 尙早하다 뿐만아니라 彼等은 더욱 兵을 集中하고 잇슴으로 我等은 決意를 鞏固히 하여 彼等의 一擊을 加할 覺悟이다

蔣張間確執暴露

【東京七日發電】 七日在北平某官에서 온 情報에 依하면 山海關事件에 對하야 蔣介石은 張學良을 窮迫할 意志로 何柱國에게 山海關奪取를 命하고 不可能한 時는 何柱國을 軍事裁判에 付한다고 威嚇하는 一方麾下의 閻震、宋哲元、龐炳勳軍에게 前線出動을 命하야 張學良을 牽制할 셈이고 하는데 張學良은 一九二九年蔣의 牽制로 東鐵紛爭을 起하야 勢力을 毁損한 經驗이 잇는 外라 容易히 이 術策에 넘지 안코 近近山海關善後處置에 關하야 蔣과 會見하고 最後的 態度를 決定하기로 되엇다 抗日을 敎唆하야 張學良의 地盤을 뭇보는 蔣介石이 가 在會見에서 如何한 態度를 보일가는 注目된다

山海關事件中心으로

何柱國軟化說

【錦州七日發電】 張學良의 使嗾에 依하야 山海關事件을 이르키엇다가 敗走한 何柱國은 部下의 太半이 戰死또는 逃亡한 結果 이대로 抗日을 繼續하엿다가는 自滅하는 수밧게 업슴을 깨닷고 張學良의 意向에 反하야 俄然軟化하는 모양이 잇는데 當地某所着電에 依하면 何柱國은 某國武官에 對하야 前非를 後悔하고 最早對日戰意를 가지지 아니한 뜻을 表明하고 日本軍에 對하야 陳謝하여 왓다 하는 바 日本軍部側에서는 山海關占據後事件을 不擴大하기로 爲主하고 잇슴으로 何柱國의 誠意如何에 따라서는 이에 應할 覺悟도 잇다

對峙된채徹夜 司令部發表

【天津七日發電通】 七日午前八時駐屯軍司令部發表＝山海關秦皇島方面戰鬪업시 對峙된대로 徹宵하고 잇다

何柱國北戴河서 全軍을指揮

急히邀擊할模樣은업다

【天津七日發電通】 石河를 最前線으로 하는 中國軍第九旅와 第二十旅의 司令部는 北戴河에 잇는 것이 判明되얏는데 何柱國은 北戴河에서 全軍을 指揮하야 防禦陣地의 構築을 急히 하고 잇서 現在로는 急히 邀擊의 態度에 나오랴는 模樣은 안보인다

十九國委員會 十六日에開會

【제네바七日發聯合】 十九國委員會의 開會는 豫定과 가티 來十六日이 不變일 것이라고 觀測되며 委員長인 白耳義外相 『이一만스』는 十三日外지 『제네바』에 到着하기로 決定되얏다 따라서 日本代表部는 十一日頃外지는 全部 『제네바』에 모일 豫定인바 松岡代表는 十三日頃外지 『제네바』에 到着할 터이다

滿洲國承認은鐵則

聯盟의如何한妥協案도不可應

日本政府態度決定

【東京七日發聯合】 日本政府는 對國際聯盟懸案問題의 總決算을 하려고 過日來外務軍部三省間에 愼重協議를 續行한 바 今回聯盟側의 提示한 妥協案은 日本側으로서는 容易히 受諾할 수 업는 것으로 斷乎聯盟의 反省을 求하기로 決定한 바 右旨를 日本代表部에 回訓을 發키로 되얏다 即聯盟決議案의 日中事件에 和協委員會設置에 關하야 米露를 加入함과 如함은 枝葉末節의 問題로 日本으로서는 무엇보다도 滿洲國의 嚴然한 存在事實의 容認을 前提하는 것인 以上聯盟側과는 如何한 折衝도 할 수 업는 것을 今後더욱 强調하려 하고 잇다 따라서 聯盟側이 이러한 態度에 不滿한 以上規約第十五條第四項의 和解勸告手段에 나가도 無可奈何라고 日本政府는 最後의 意思를 決定하고 잇슴으로 來十六日再開될 十九國委員會는 開會劈頭聯盟對日本의 重大危機를 展開하게 될 것이다

決議案修正條件으로 日本의讓步를要請

聯盟과日本의衝突을緩和코저

사이몬英外相이發議

【東京七日發電通】 聯盟側은 滿洲起草한 總會決議案의 成立을 希望하야 政府의 反對를 緩和코저 사이몬、드라몬드兩氏의 發議에 依하야 決議案에서

一、米露招請을 撤回할 것

一、理由書末項의 原狀復舊及滿洲國否認을 不可하다는 條項을 削除할 것

의 二點의 修正을 條件으로 日本의 讓步를 要求하리란 드레英大使로부터 四日內田外相에 對하야 重大進言을 햇다는 情報가 一部에 傳言되엿스나 七日外務當局은 右事實이 업다고 前提하고 公式으로 決議案修正에 對하야 左의 見解를 示하엿다

一、和協委員會의 米露招請을 斷念하야도 그 權限을 原案과 如히 日中問題에 介入할 時는 斷然承服할 수 업다

一、日本은 聯盟과의 衝突을 不欲하나 五日 이一만스氏가 佐藤大使에 示한 바와 如히 十五條四項適用의 威迫的 態度를 持續하는 以上聯盟이 表面的 妥協態度를 示할지도 讓步할 수 업다

一、그러나 十五條四項을 適用하야 勸告案을 作成하야도 日本은 拒否할 뿐으로 痛痒을 感한다 도리혀 聯盟은 滿洲問題가 介入치 못하고 困難한 立場에 서게 될 것이다

總督府年初 局部長會議

今年當初의 局部長會議를 七日午前十時부터 林財務局長으로부터 朝鮮豫算의 折衝顚末을 報告하고 다음 池田警務局長으로부터 朝鮮癩豫防協會基金募集成績에 對하야 報告하고 또 이 計劃에 對하야 日本方面으로부터도 醵同情잇는 寄附金이 오고 잇다고 陳述한 後今井田總監으로부터 朝鮮에서의 自力更生運動은 只今가 라다 시는 訓諭를 終了한 後 各局部長은 各自의 所管에 依하야 地方의 實情에 應한 具體案으로써 實施하기를 바란다 하야 池南次郞知事의 異動說은 其後 사라지고 마라 只今은 全然업서 고 말엇다 米穀統制問題에 關하야 昨日鮮內當業者로부터 大意見을 徵聞하얏는 바 關係局部長은 今後 나시 이 問題에 對하야 盡力하기를 바란다고 陳述하고 同十二時에 終了하얏다

健康과停年을理由로

岡田海相辭職?

留任運動도無効形勢

【東京七日發聯合】 來二十日로 滿六十五歲停年에 達하는 岡田海相의 進退에 對하야는 여러가지 所聞이 잇는데 政府는 勿論一般政界에 多大한 衝動을 주고 잇는 이때 岡田海相은 感冒來驗을 害하야 從來私邸에서 初閣議에는 缺席하고 事 靜養에 努力하고 잇는데 海相은 自己의 健康이 萬若議會出席을 不許하게 되면 齋藤首相의 留任勸告를 물니치고 斷乎初志며로 停年滿期를 보고 勇退하게 되지 안을가 觀測되나 岡田海相의 進退는 健康問題에 關連하야 急速히 進展되려는 形勢에 이르럿는데 海相의 病은 動脈硬化症으로 血壓도 매우 高하야 醫師는 絶對安靜을 勸告하고 잇슴으로 只今가 타서는 休會後議會初에 出席하기는 困難할 모양이며 이 消息을 接하자 齋藤首相은 各方面으로 極力留任을 懇請하고 잇는데 海相의 眞意로서는 健康이 到底히 議會에 나갈 수가 업는 理由로 斷然桂冠을 決意한 모양이며 近近數日中에 進退를 明白히 하야 議會再開前에 實現하야 其後任으로는 軍事參議官安保、同大角兩大將이 擬擧되는데 其中安保大將의 再起가 가장 有力視되는 模樣이다

後任으로는 安保說有力

【東京七日發聯合】 別項과 가티 ……

米日爲替上進

【紐育七日發聯合】 七日의 米日爲替는 十三仙高의 二十弗七十三仙이 되얏다

落合部隊의損害

【天津七日發聯合】 天津駐屯軍司令部公表＝天津駐屯軍落合部隊의 損害는 如左하다 ▲死傷者合計十九名 ▲內戰死四(中尉一、下士一、兵二) ▲負傷十五(大尉一、下士三、兵十一)

八面鋒

◇露滿國境에 白系露人이 獨立運動을 한다고 街頭의 風聞이

◇貫易한 間빌자는 수작 貫易이 單純한 貫易이라면 問題업지만 借款入室格이 된다면 그때에는 말정人거리

◇如何間 滿洲가 獨立하고 比島의 獨立이 十年後로 約束되고 또 白系露人들이 獨立하고…

◇이러케 獨立의 行進曲이 騷亂하여서는 잠자든 地神들이 精神못차리지나 아니할가

◇文部省이 講釋師를 養成할 터이라고 敎師보다는 探洞公園의 古談老人을 모시어 가소

社告

本社振替口座는 旣報한 바와 가티 京城五八七八番으로 新設되얏사옴에 不拘하고 獨番號인 京城一〇二番으로 拂込시는 분이 或有하온 바 이에 對하야 來十一以後도부터 本社는 一切責任을 不負하겟사오니 注意하심을 敬要

朝鮮日報社白

本年이야말로 官界에 進出 只今入會하면 年內合格就職도 可

指導二十年短期獨學으로 官吏養成의 絶對自信

就職과成功을確信한다

아침바다는 넘니빗나기 시작하야 昭和第八의 新春은 우렁차게 밝엇다 改年의 初頭、그는 장차 靑少年으로 하야금、立志의 絶好機、此時를 當하야 創立以來滿二十年의 光榮잇는 新年을 마지한 本會는 全日本의 獨學靑少年諸君의 불으지즘 諸君!! 모一든 書籍을 버리고 本會에 오라、그래서 官界에 들 準備를 하라、本講義錄은 最短期의 獨學으로 諸君을 文官普通試驗 또는 裁判所書記試驗에 合格식혀 判任官이 되게 하겟다 우선 入會하시요、試驗合格就職任官等의 謝狀 連月殺到하야 獨學者의 王國이 이에 잇는 實感을 깁게 할 것이다

普通文官講義

本會講義錄의 特色三

◇本講義錄은 全文總振假名付平易한 口語文이여서 小學卒業의 學力으로 … 文官各種試驗 … 科目 … ◇… 科目 …

新年新學期大特典提供

入會안는 분도 見本은 보시오

本會의 內容見本에는 會則과 講義錄見本外에 獨學者로서 須要한 講義錄選擇上의 注意○逆境開拓의 手段方法○獨學奮闘成功者列傳○短期試驗合格者手記等의 名記事가 滿載되얏스니 本會에 入會치 안는 분도 꼭 一讀하시요。無代發呈함

東京市日本橋區濱町(新大橋際)

『日本大學法制學會』改稱

日本大學通信法制學會

(電話浪花一五〇五番・振替東京二三四五六番)

年々判任官과辯護士司法官等續出!!

雜誌雄辯 本會推稱의 記事 揭載

本會는 每回普文裁判試驗에서 合格者의 八割強의 會友合格者를 내여 官界入門者의 水先案內가 되여 잇든 中이나 이 外에 年々高文行政科並司法科試驗合格者를 續出식혀 昨年度에도 三名의 司法官試補와 五名의 辯護士試驗合格會友를 내엿다、그러면 雜誌雄辯은 天下의 獨學靑少年의 慈父인 本會澤野會長을 訪問、그 學靑少年의 新年號에 感動의 訪問記를 揭載하엿다 天下의 獨學靑少年諸君!! 所謂『入會하면 무엇 成功식힌다』는 情熱에 타올나 通信敎育의 指導에 君臨하야 잇는 此會長下에 와서 배워라 諸君의 成功을 確保하라!!

內容見本 藥書에 本新聞에 依한 旨記入申込次第 (獨學者에 須要한 立志記事滿載!! 八十頁의 册子) 無代進呈

꾸수실 분사실 재봉실 재단실

삼실제조

京城仁寺洞七六 振替京城一七四八三 首陽店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入院室暖房은「스팀」及溫突 (電話光化門一五八三 …)

一月七日낫부터 每日晝夜二回 大興行 낫零時五十分 밤七時十分 始映

◇다ー넷트社作品 名優밴나빈의 特別大力演 벤나빈의 結婚生活 全六卷

◇米國와ー나社作品 名優 …토ー아氏主演 나야말로 大王이다 全八卷 으로진진한 자미잇는 映畵 新年初에 興味百파센트니

◇푹스社超特作品 크ー파ー지루 全八卷 …優자ー 부스후아ー 레부氏主演 戀과愛慾과 砂漠의 사랑으로써 大爭鬪 파란만흔 世上도 結局戀愛인가 今週부터 十五日까지 漫畵스캣치에 對한 投票가잇슴니다 만히 와주시요

大衆料金 階上十五錢均一 階下十錢均一

京城鍾路四丁目 常設映畵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

◇一月六日낫부터 特別大公開 料金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월리암폭쓰特作全發聲日本版 醫師의 妻 全八卷 監督……푸란크보ー사키氏 主演……와나박스타ー氏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西部大活劇 死의 拳銃狩 全八卷 監督……에드와드레ー강氏 主演……후ー트기브슨氏

◇西部活劇의 寵兒 하리케리氏의 好機우울다 豪勇無比 熱血의 本格的西部大活劇

◇파라마운트特作全發聲日本版 百米突戀愛自由型

次週豫告 三大篇堂堂六日封切 …復活(카추사) 全七卷 七萬人의 目擊者、五十年後世界 …

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一二八一番

◇一月九日낫부터 每日二回公開 第三週의 陣容은 또한 이러하다! 巨彈에 또다시 巨彈 他者의 追從을 不許할만한 二大名畵의 威容

◆파라마운트超特作發聲日本版 또로듸아스나女史監督 滿天下未婚女性에게 이 한篇 映畵를 밧치노라 우리들은 지렁이거웁게 地獄에 가요 全十卷 프레데릭마치氏 실비아시드니孃 主演 새로운 近代戀愛觀 徹底한 明朗性 戀愛와 結婚은 무엇 結婚前後 近代女性의 心理를 描寫함에 빈틈이 업는 이것은 넘어도 有名한 愉悅篇

◆파라마운트特作全發聲日本版 떠뷔드버ー톤氏監督作品 어둠에서 춤다춘 全九卷 自己의 목숨을 바치어 젠트루드 마이스 색투스를 노래하며 춤춘 엇더한 女性의 眞心 ー파社最近의 大收穫篇 임에 誇張의 文句는 避한다

◆파社뉴ー스及漫畵도 잇슴니다

次週十三日 封切 메추로名作二篇 그라다 갈보孃 쓴길버ー드氏의 로맨스 十卷 巴里의 魔人 九卷

高級常設 團成社

봄빗과발마추어서……八

傳統的光輝잇는 發明朝鮮의天才

儒敎思想에눌렷든智慧의화살 造物主도울니랴는그氣槪

인간이란 것은 영리한것 갓해도실상은어리석은물건이 다 천지개벽이래 임금(林檎) 이떠에떠러지는 사실은 누구 나보고 잇스면서도 『뉴-톤』 이나오기까지는만유인력(萬 有人力)이라는것을알지못하엿 스며 또하물며상대성원리(相 對性原理)가튼것은꿈에도생 각지 못하엿든것이다 지구 (地球)가돈다고 단언을 한까 닭에 경을칫든시대까지도 잇 섯든것이다 『스티븐손』이 발 명한 긔차라는괴물이 조선에 처음 낫타낫슬때에 나귀등에 올라 섯던이고가든도학자(道 學者) 선생님이긔차를못가게 주문(咒文)을 읽다가 경을친 『던센스』도어케와갓다 그러나인간은역시인간이다

어리석게 보히는 반면에 는 만물이추종하지못할 귀여 운총명과 지혜가잇는것도 인 간인것이다 만유인력이나 상 대성원리를 발견한것도 결국 인간의 힘인것이며 『에듸손』 이전긔(電氣)를 발명하야 인 간으로하여금 만물에 군림하 게한것도 인간의 무한한힘을 증명한데불과한것이다 신(神) 이아닌인간은자조실패를거듭 한다그러나 그실패는곳장래의 성공을약속한데불과한것이다 이상과가튼『던센스』와 희비 극도그시대그당시에는흥미잇는 진리엿슬는지도모를것이다그 러나무준히 나가는 인간의노 력과 날카로운지혜는 나날이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여간다 어제의 행사를오늘에 뉘우치 는것 그것이곳 인간의향상이 매진보가 아니고무엇이랴

향상진보 는인간으로하 여금일천구백 삼십삼년의 최 고의과학 문명을 갓게하엿다

◇發明王 에듸손 翁

유사이래 처음으로 비롱입시 발달된 교통긔관은 위대하다 는지구를 시간적으로 여지업 시축소하여 바리고 마럿다세 밀한긔계의 발달은세계의 임 금로동자에게 위협을 주엇고 위대한 과학자는 지구를떠나 서월세계(月世界)를정복하려 고멧번이나 갸웃거렷다 남극 (南極)북극(北極)은언어를상 통하고인구(人口)과잉을념려 하야 생기여난 산아제한(産 兒制限)의방법에는십오권차 리의약이 낫스매험상구진노로 못든『네온사인』은젊은이의엉 명좀을 자어내엿다 그나그뿐 인가 참된인간의

참된생활 은그려캐그것 을원치안는 진톨용의 병긔 (兵器)까지도 일천 구백십 사년의 세계대전의 세례를 밧은후부터는 가속도로 발전되 얏다 그중독와사(毒瓦斯)살인 광선(殺人光線)갓흔것은임음 만들려도 무시무시하게 약한 자의 간담을서늘하고잇다 그러 나이것은 모다가 엄숙한인류 력사의創무든결정이며 노력 의결파인것이다 이노력이 결 정으로 자연현상의 모든것을 정복한 금일의인류는 조물주 (造物主)의심장에까지도선전 포고의화살을더지고잇는것이 다

이세계적 문명의긔초에 여지업시 종명이엿고 또 는 우리조선사람의 노력의흔 정도적지안케 석기여잇다 태 종대왕(太宗大王)께옵서는동 (銅)으로 활자를주하사 활자 인쇄를 발명하셧스며 리순신 (李舜臣)장군은금일의소위잠 항정(潛航艇)에압서서 『거북 선』을발명하셧고고려(高麗) 의자긔는 금일에도 오히려그 광채를 일치아니하며 세계의 건축계(建築界)에종아가되여 잇는 양인의위대한발명품 『세 멘트』는근일에우리조선영신 라시대(新羅時代)의고분(古 墳)중에서발견되야양인의코 를부지르고마럿다 과학의 발 달이 금일과갓지못하고 모든 환경에 불천파무리가 만튼시 대에잇서서 이러한 세계적발 명을감행한 우리선조는 발명 게에은인이요 세계의 자랑거 리일것이다 맛당히 옷깃을염 이고 그인격과 지혜를흠모하 며 그공로를 찬미하여야될것 이안닌가 력사의흐름은 인류의 향상파 진보를 의미하는것이 원측 이러만은 례외업슴은 업슴인 지 수백년동안의탈선된 공자 왈맹자왈이 이러한위대한 혈 통을가진 우리의발명욕(發明 慾)과창작력(創作力)을 무지한반면에 염치업는 황포 와시겨로 에삭한 기공이손을 근로도리의전후 쓰더지가는 오 막사리와가치 조선의 발명게 는페허가되고마럿다 퇴보여 된보배 거듭하여온 조선인의 발명욕과 창작력은 오날의힌 지에버려진 노를 아모것도 갓지 못하엿다 그러나위대한 혈통을 밧드든 우리로서 과학문명이 이러케 발달한 일천구백삼십삼년 음에 엇지그신경이 그대로잠 자고잇스랴 장차고잇는 우리 의신경과 천분과열은 쌍금히 울니는 사조의종소리와 한가 지로 벌서부터 그힘을발휘하 기시작하고잇다 빈약은 하나 마 우리의손으로된 발명품이 우

발명품이 오륙월의 죽 순과가티 여기서도 저기서 도 불근불근 소사난다 작 년일년의 수확만도 쇄광긔 (碎鑛機)수동양수긔(手動揚 水機) 선정식정미(旋靜式精 米)온돌(溫突)등이 강동수 (姜東秀)씨의손에발명되여잇 고수상(水上)스케ㅣ트가송찬 용(宋贊用)씨손에서자현산반 (字現算盤)과『레ㅣ푸』인쇄 긔등이박경준(朴京俊)씨손에 서 나와잇스며 김현구(金顯 玖)씨의면타긔(綿打機) 김상 진(金象鎭)씨의 귀알 원동긔 (原動機) 리성석(李 聖錫)씨의 전차제 만탄호(?) 등이 나오고잇다 에도수만흔발명품이 뒤를이어 예긔빌루토하고 잇스며 기러 나오고잇다

그러나 힘세인 세계발명품에 대하야 조금미약한 선천한맛 이잇다 아니다 이것은과자의 무지한발일도지도모를것이다

과학자의 눈에는천지의 진리를탐구하는 개벽이나 배후의 재주념는것 이나별로다룰것이 업슬것이 다 발명의긔봄! 창작의긔봄 온문외한의아들바아닌것이다 잠재하나는조선의발명제! 여 역긔의 조선의 발명제로는이 것이위대한천분을발휘할시국 이될른지도 모를것이다 빈약 하다고 웃지마라 만유인력의 『뉴톤』는 임금이 떠에떠러 지는것이엿스며 세계를 질주 하는긔관차의 힌트는 쇠떠넘 치는주전자의뚝경에 가잇섯다 일천구백 삼십삼년의 새로운 봄빗은도라왓다 이봄빗의발을 맛추어 조선의발명게가 금년 에는또얼마나 위대한 수확을 엇게될는지 원컨대천하를 움 직일발명품이 우리조선에 뒤 틀니어나오라

年復年增加하는 朝鮮工場勞働者

總數의八割以上이朝鮮人 生活難으로女子와幼年工이多數

工場表에나타난現象

작년칠월부터 구월까지 삼개 월간 조선내의 공장중오십명이 상의종업원을 사용하는 삼십칠 개종류이백십오개소 공장에 대 한총독부당국의 조사를보면 종 업원총수는 오만이천사백 이십 오인으로 전년동긔(同期)에 비 하면 사천이백 십구인 전긔(前 期)에비하면 삼천이백구십일명 의증가를 보앗다 이것을 인종별 로보면

▲朝鮮人側	
男子成年工	二五、九六六人
同 幼年工	一、一一六
女子成年工	一、六〇二
同 幼年工	一、五三九
合 計	四四、一四一
▲日本人側	
男子成年工	五、四六〇人
同 幼年工	九三四
女子成年工	三四一
合 計	五、八九四
▲中國人側	
男子成年工	一、八六八人
同 幼年工	二二
合 計	一、八九〇

등으로 합계를보면 조선인측 은전수효의팔할오분 일본인측 은일할일분 중국인측은 사분에 해당하다 이상의 수효를벼에 조선인측이 녀자와 유년공이특 히만흔것은 근년조선인 측의살 림이궁하야가고 잇다는것을 짐 작할수가잇다

時間增加나 賃金減下

로동시간과 임금의 증감상황을 보면 로동시간은 전년동기에비 하여 일본인남자유년 남공녀공 조선인 청년녀공은 그대로잇고 그여는 륙분내지 사십이분의연 장을보앗고 전긔(前期)에 비하 면 일본인유년공은 팔분이축소 되엿고 조선인측 남자청년공만 은 그대로잇고 그여는 륙분내 지 삼십륙분의연장을보앗다 그 리고 임금은 전년동긔에비하야 조선인 청년남녀공은 이전이증 가되엿고 중국인은 그대로잇고 기타는 이전내지 사전이내리엿 다 또전긔에비하면 조선인청년 남녀공은 남녀 중국인측은일전 식 각히올랏고 기타 오전내지 십구전이내리엇다 대체로보면 로동시간은 연장되고 임금은감 하된 경향을엿볼수잇다 이것으 로보아 종업원이 증가와로동시 간의연장은 공장공업이 농성하 엿슴을 엿볼수잇고 일면에임금 이 그만큼을오지못한것은 자본 가의보청을그대로낫타낸것을알 수잇다

勞働時間은만허도 賃金은日本人의半

勞働賃金의比較表

그리고 조선인측과 일본인측과 의입금과로동시간을비하면조선 인측이 로동시간는 만호면서도 로동임금은 일본인의 거이반액 밧게안된다는것이특히주목된다 이제그상항을보면

	賃金	勞働時間
日本人側		
男成年工	一、八六	八、四八
男幼年工	〇、六六	八、〇〇
女成年工	〇、九五	九、二四
朝鮮人側		
男成年工	〇、九四	九、五四
幼年工	〇、三四	一〇、五四
女成年工	〇、五七	一〇、四二
幼年工	〇、二八	一一、〇〇
中國人側		
男成年工	〇、七一	一〇、三〇
幼年工	〇、三〇	一二、〇〇

으로되여잇다

社會保健上問題인 幼年工의勞働時間

이상의표에 의하여보아 가장주 목되는것은 조선인 측의소가든 상정이 하로종일 일하여엇는임 금이겨우 일본인녀자의 하로임 금밧게 안된다는 처참한상태에 잇다는것이다 그러고 사회적으 로아목을 요할만한것은 일본인 측은 로동시간이 팔시간내지구 시간으로 되여잇스나 조선인측 은십시간이상이 되엿고 가장심 한것은 중국인유년고용에 이르 러서는 십이시간로동으로 되여 잇서 나어리고 유약한녀자나유 년공들이 성장과예 마음것성장 할긔회를 못가지고 큰돈한장정 들보다도 오랜시간을 공장에서 긔계에 매달려지나게 된다는것 은사회보건 문제도 크게주목되 는바이다 그러고이것은 근래에 자본가들이 입금이싼 직공을채 용코자하는데서 청년공보다 유 년공이나 녀공을 만히채용하고 딸아서 로동시간도 남자청년공 들보다길게하는모양이다

東大門美化의 第三期工事

동부경성주민의대망인 清凉里道路도改修

작년도경성부토목공사중에제일 주목되든동부사뎐목동대문간의 공사는 거이끗나게되엿스나 아 즉완성되지못하엿이제부터계삼 긔공사로써완성하리라한다그런 데이동대문공사는점차동부방면 발전하는데따라이도로개수의필 요에서나오는것이지만계삼 긔공사로서는 동대문(東大門) (흥인지문(興仁之門))을 남대문 의 숭례문(崇禮門)과가티 고쳐 보건되므로 그부근지대를 정절 하게 경전(京電) 레ㅣ르스코ㅣ트 를입새이고 이것을도로로 만들 고동대문을 중심으로 그주위를 『에스팔트』의 도로로 가하 위를 정결히하고문안으로 통행 하도록 또하나길을 만든다고한 다 그리하여 동대문청량리 간의 도로도 개수하리라고한다 이러 케되면 동부방면의발전은 더욱 급속도로되리라한다

◇中語學生新募 시내수표 정조선교육협회내(水標町朝鮮 敎育協會內)에한어강습원(漢語 講習院)은설립하고사년이래로 고수에노력하야오든바거년십이 월까지삼회의졸업생이낫다하며 계속하야 금년일월부터 또다시 학생오십명 모집하야 …인 선생외에 중국인교사도 고빙할 예정이라하며 현시중국에서 새 로사용하는 신자음도 함께교수 한다는데 개학은 일월십일부터 야학으로 교수한다하며 시대에 응하야 권임보다 지원하는입학 생이활신만타고한다

白系露人을때合 極東에獨立國建設

◇……武藤大將의諒解를어더 그進展이注目處

【奉天電】 만주국성립이래백 계로인의 입반하는자가 만흔중 최근 회회교의 대승정 (回回敎 大僧正)『쿨방가리ㅣ』는각처에 산재한 백계로인을 규합하야로 만국경(露滿國境)에독립국을건 설코저 무등대장(武藤大將)을 회견하고 량해를구한후 지난뉵 일 봉천을 떠나동경으로향하얏 는데 이독립운동은 연해주(沿 海州)시베리아방면에 까지확대 되려는것으로 그진전은 자못주 목되나고한다

些少한言詰로 傷害致死 시외신당리서

고양군한지면신당리(高陽郡漢 芝面新堂里) 백칠번지의십륙호 에거주하는김명옥(金明玉)의장 남장화(章華)(二七)라는소년은지 난십이월삼십일에동리(同里)일 백칠번지의륙호김교흥(金敎興) 의이남원복(元福)(一二)이와사소 한일로 싸홈을시작하야 몃번때 린것이급소를 때렷든지 원복이 는그자리에 인사불성이 되야쓰 러지고 마럿다 이것을본부형들 은놀라즉시 원복이를 부내남대 문통세부란스 병원에 입원가료 케하엿스나 여전히 혼수상태에 바저잇서 경과가조치 못하든중 수일전부터 륵독증(顙毒症)을 병발하야 오일오전 십일시경에 그만사망하고 마럿다는데 동대 문경찰서(東大門署)에서는가해 자를체포하여다가 상해치사(傷 害致死)죄로취조중이라한다

纛島의火災 露積松枝에서

강변에쌋어둔 소나무의 화재= 륙일오후칠시경 고양군 서둑섬 리(西纛島里)한강변에쌋어둔김 삼동(金三東)의소유소나무에돌 연불이부러서 타기시작하야 것 잡을사이업시 전부 타버리엇는 데 손해는일백오십원 가량이라 하며 동강변에는 여러무덥이의 소나무가 쌓이어 잇섯스나다행 이이날밤 바람이업섯고 또강물 을떠서얼는 끄기때문에 연소되 지는안이하엿다한다 그리고 이 화재의 원인은담배불에서 이러 난듯하다고한다

朝日連絡電話 萬般準備完成

래십오륙일부터실시 區域은九州와關西地方

일본 조선의련락과 일반실시는 그동안 만반의 준비가완정되여 통화구역 통화료금등의 결정도 되얏슴으로 불일간 성령(省令) 과 부령(府令)을동시에 공포할 터인데 듯는바에의하면 십일경 공표하고 십오륙일경부터 일반 에게 실시하리라한다 그런데통 화구역은 당분간 경성으로부터 구주(九州)관서(關西)의주요도 시에한정될모양이라한다

極寒大空에 飛行機亂舞

平壤을中心으로 大大的實戰演習

일본공군의 정예 빈송폭격비행 대(濱松爆擊飛行隊)에서는련대 장 중야주만대좌(聯隊長中野周 萬大佐)의 총지휘하에 래십일 부터 십팔일까지 평양비행장을 중심으로 팔칠식중폭격긔(八七 式重爆擊機) 두대와팔팔식경폭 격긔(八八式輕爆擊機)세대와평 양비행대 소속비행긔를 합하야 장렬한 공중전을 실시한다는데 전긔 다섯대의 비행긔는금팔일 태도선으로부터 단숨에 평양까 지날러와 하루동안 련습준비를 하야가지고 십일부터 시작하야 십팔일에끗을막고이십일에각각 도라간다고한다

◇……◇

日本最初의計劃 漢江氷上을滑走

래십구일부터 이십삼일까지 경 성비행장을 중심으로서빙고(西 氷庫)부근까지에널으는 한강상 에서 일본최초의개회인 비상활 주(氷上滑走)연습경쟁을한다는 데 참가하는비행긔는 소택비행 학교(所澤飛行學校)의팔팔식정 찰긔(八八式偵察機)삼대와구일 식전투긔(九一式戰鬪機)두대로 써대히거행할터이라한다

네거리

▲녕령어리우에잇는 모든 사람이 비상시 (非常時)라고떠드는 이때▲금번눈하는천 체(天體)에도비상시 가왓다고 발표한 천 문학자가잇섯다▲하 늘노 비상사란것은태양흑점(太 陽黑點)의 변화를 말하는것인데 ▲ 금년태양의흑점은 제일 적어지 는 해라고▲태양흑점의 변화는 지구상의음량풍우(陰涼風雨)를 지배하고 따라서 농작의풍흉을 좌우한다▲금년천체의 이변(異 變)!과연 조선에길인가!흉인 가!바라건내재앙이업고풍년이 들기를

東四軒町의 自殺未遂青年 아직도혼수상태

부내황금정(黃金町)삼정목일백 칠십삼번지항길상점(恒吉商店) 의고용인으로잇는 신광섭(申光 燮)(二九)은작뉵일오후십시반경 에 자살할목적으로 양잿물을만 히마시고나와 동사헌정(東四軒 町)감천교(甘泉橋)부근에서고 민하고잇는것을 순행하는 본정 서원이발견하고 즉시 부근금촌 (今村)병원의 의사를 불러다가 응급치료를 식힌후 그주인을오 게하야 본뎐(本田)병원에 입원 식히여 생명은겨우 건지엿스나 아직도 의식이몽롱하다한다 자 살하려든원인은 본인이 혼수상 태에잇슴으로아직조사중이라한 다

債鬼로誤認코 列車에서跳下

오일아츰에 나희사십가량된 일 본인남자일명이 머리에 피를흘 리면서 릉곡면(凌谷面)에 와서 역장에게 자긔는렬차로 부터떠 러저서 부상되얏다고 신출한지 가잇섯다 그자는사일밤 십일시 경에 경의선(京義線)릉곡(凌 谷)수색(水色)간을 진행중의렬 재체오렬차로부터 뛰여 나려서 머리에 렬상을당하고 제방밋해 혼도되얏다가 오일아츰에 이르 러 소생하얏다하는데 동인은록 아도현일치군 영길촌(鹿兒島縣 日置郡永吉村)오백 팔십칠번지 정구보청길(井久保淸吉)(四○)이 라는자로서 채염 고향으로부터 도망질하야 룡산 (龍山)에 이르러사일밤에 남천 (南川)행차표를 사가지고 승차 하얏슬때 그차안에 고향친구가 잇슴을보고 자긔를잡으라 온것 으로 추측하야그가티 진행중의 렬차로부터 뛰여나린것이 판명 되얏슴으로 방금룡산 철도병원 에서수당을밧는중이라한다

運動競技

天理中을屈服시켜 京師優勝 中等校럭비大會에

朝鮮代表로 大每主催第十五回 中等學校럭비蹴球大會에出場한 京城師範軍은 七日午後二時半 南甲子園에서 降雨를무릅쓰고 强敵天理中學과最後的決戰에相 對하야京師의强襲은 三十二對 五의大差로 天理中學을屈服시 키어三年連續하야 優勝의榮冠 을獲得하얏다

東明體操團 保健運動 十日부터繼續集合

【平壤】 平壤大衆的保健運動 의唯一인東明體操團은그 동안集合을中止하엿든바 來十 日새벽부터다시集合하야如前히 保健體操를開始하기로되엿다 新年을當한今期에는會員倍加運 動을일으키게되여大人的으로會 員募集에 着手하기로되엿슴으 로府民들은多數參加하기를바란 다고한다

平壤奬武會에서 冒寒大練習 十日부터二週間

【平壤】 平壤奬武會에서는十 日부터 二週間每朝六時定刻에 巨倉師範女昌南 金命性林氏指 導下에서柔道寒稽古大練習을擧行하 기로되엿다 會員七十餘名이參加하야猛烈한 練習을할은勿論市內有志의參加 를大歡迎한다고한다

朝鮮과滿洲對抗 스켓트大會 廿九日鴨綠江서

【安東縣】 天然的氷滑場을가 진 安東氷滑選手들은來十四日 南日 奉天에서열릴全滿洲氷滑 選手權大會를압두고 大進轉와 大和橋直下氷滑場에서 猛烈한 練習을쌓어가는中이다 安東運 動協會氷滑部에서는 年例에依 하야 來二十九日 鴨綠江銀盤 上에서 滿鮮氷滑選手權大會를 開催하기로하야 目下準備에奔 忙中이라는데 아즉鴨綠江이完 全히凍結되지안어 憂慮하고 잇지마는 大會期日까지에는完 全히凍結될줄로豫期하고잇다 再昨年에朝鮮選手가優勝한後昨 年에는 時局關係로中止하얏섯 슴으로 今年에는壯快한接戰이 展開될줄로人氣는 자못沸騰되 야잇다한다

高專럭비大會 早稻田高優勝

大每主催第八回日本高專럭비大 會決勝早稻田高等學院對關西學 院專門部試合은 六日午後二時 半부터 大軌沿線花園競技場에 서 別所主審下에關學先蹴으로 開始하야 早高의猛襲은 關學 陣을蹂躪시키어前半에十六點 後半에五點을奪取하얏슴에對하 야關學은終是得點一擧를得치못 한結果二十一對零으로早高優勝 의榮冠을獲得하다

日本高等校蹴球 六高優勝

東西兩帝大主催 第十回日本高 等學校蹴球大會第六日 六高對 松山決勝戰은 六日午後一時半 부터 岡崎公園球場에서竹腰審 判下에 松山先蹴으로開始하야 降雨中에서激戰을演하다가 前 半에二對一로六高優勢를示하면 서 後半에는서로得點업시그대 로六高優勝하다

中等校蹴球準決勝 神中과靑師得勝

大每主催第十五回 日本中等學 校蹴球大會아式準決勝戰은 六 日南甲子園에서擧行하야 神戶 一中과靑山師範은 愛知一師와 京都師範을물리처 優勝戰에서 霸權을爭하게되엿다

神戶3 (1—0•2—0) 0愛知
靑師2 (2—0•0—0) 0京師

男女淋疾 赤白帶下 最短期 根治劑

效力一等 當選淋藥

世界的問題이던 淋疾根治藥이 秘方懸賞募集結果發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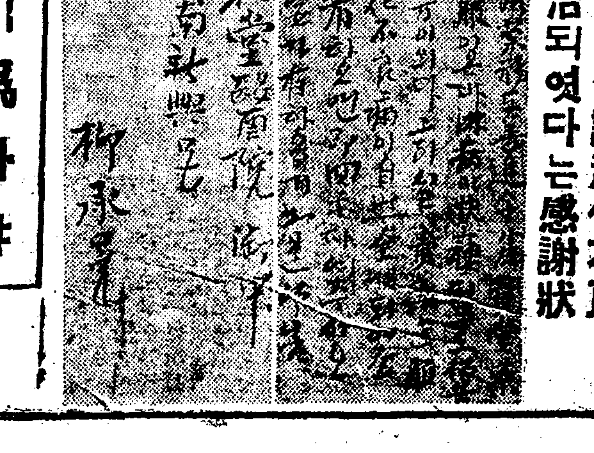
全朝鮮漢方秘法을爲始하야 日本中國西洋各國의秘方 懸賞應募處方七百通中特選

淋疾에는이藥이第一되는理由

本研究部에서는大小官私立病院 醫生 學士 博士의有名한處方은全部求하여보앗스나 大同小異하고別特効한것이無함으로 또다시多方面으로處方을求하는一方策으로 亡身亡國病淋疾을撲滅一掃코저하야 淋疾藥下最短期根治되는天下第一의絶世秘方을가지신이는 可憐한人生을爲하야그秘方을本研究所로 보내달나고 秘方懸賞募集發表를 大大的으로하엿더니 前總督府病院大學病院赤十字病院 세부란스病院에서 가장第一이라고常用하는處方等을爲始하야 學士博士等의洋藥으로된處方 漢藥으로된處方 醫生民間世傳秘方等 七百餘通秘方이募集되엿슴으로 이것을實驗中發見된最强大하고 副作用全無하고 消化食欲增進 朝鮮人腸胃에 最適合한 果然特効藥이發見되엿슴으로 效力一等最短期根治劑라고 當選懸賞을주고 製藥販賣를開始한것이 本當選淋藥이니 世上에이以上藥이 絶對的업슬것을實驗에依하야自信하고保證販賣합니다 한가지病에七百種學博士秘方 이中特選藥이니 上之上最上第一되는藥일것은世上에共認되어잇슴니다

●當選淋藥本舖에는世上淋藥處方全部 모히엿소

淋疾根治는勿論消化不良까지全治되엿다는感謝狀



絶對的信用을엇기爲하야

●萬一無效하면藥價를물너드리던지 ●完全根治까지藥을無料로드리던지 兩端間 당신의要求대로 하여드리난 責任게약保證書를 一一히藥봉안에너엇사오니 絶對로安心하시고 注文하시요 藥을注文하섯다가萬一이런 確實한 保證書가업스면 即時藥을退送하시요

當選淋藥은무엇으로만든藥인가

●朝鮮漢方秘方特効藥과 新發明超特効藥五種이 各各相當한分量이드럿고 ●日本國政府가 性分、作用、効力을法律로 確認한藥品中 第一가는藥이相當한分量이드럿고 ●獨逸國政府가 性分、作用、効力을 法律로 確認한藥品 中第一가는藥이相當한分量이드럿소 當選淋藥의內容이이러하니가 世界어나나라 어니會社藥과比較實驗하던지 百戰百中必勝의自信이有함으로 우리는 恒常廣告할째마다朝鮮에서盛賣되는 有名賣藥中 何國製를勿論하고 當選淋藥보나 卓効한藥은絶對的업다고 堂堂한廣告를한것이며 以上內容事實을보면 누구던지當選淋藥以上의藥이 天下에다시업슬것을 의심업시알것임니다 ●그럼으로 智識階級은 淋疾이걸니면 當選淋藥外의 他藥은絶對로쓰지안니합니다 藥을注文할째에 當選淋藥에關한 多少라도 의심이나면 무엇이나 此上말을나잘알만한친구에게 물니問議하여보시고注文하시요

慢性 全治用一週分 四圓
急性 全治用一週分 二圓半
慢性重症 全治用十五日分 十圓
急性重症 全治用十五日分 八圓
送料先金이면無料 代引이면 廿五錢

試用無料 十五錢郵票보내시는人게送

京城水下町四、一 平和堂藥品部 振替 電光 九六 三二 三二

當選戲曲

『正浩의죽엄』(一幕)

(2) 金長石 作

母 (順姬에게)저놈의, 계집애가 언제나 철을안담! 약을가지고 오면좋갓치가지고와야지 참속이상해서

正浩 (順姬을同情하여힘업시) 돈이업서서 토햇나요 어머니는 그런소리말고 일이나하시오

母 (順姬를놓치면서청난 목소리로) 저리가라

正浩 (順姬의손을쥐면서)누-누나 울지말우! 어머님은아부지와일이야가하라구 여긔아저서재미잇는이야기나해줘

母 (그만머리를숙이고 일편으로나와일을한다)

朴청지 (일을始作한다)이놈의세상이 언제나 잘되나잇는놈!업는놈!네것!내것!이것 저것을 생각하면이가갈니여 참을수가업네! 에!

母 이왕이렇케되쳐세상을엇지할것가 사는날까지 살다죽으면그만이요 그저죽어서무덤이나하나되구말시오

朴청지 正鐵이놈 무슨죄가잇다구 삼년식이나 저렇케고생을식혀 단발유농민조합(農民組合) 만드럿다고...... 그래농민들이 농민조합갓는것이뭣이어잘못이람! 참기막힌이야기고 또수리조합(水利組合)이니 뭐니한것이 또그들생각에는 잘한일을아는모양이지? (한숨을쉬면서)예! 못된놈의세상이야!

正浩 누나야 나는공부를만히해서 큰사람이되며서 우리와가튼농민이나 업는사람을위하여일을하고십허

順姬 힘잇는데까지 공부하자 그러고 우리의말못햇든사정을씨원히말하고살자!(운다)

正浩 (울면서)우리울지맙시다 울면안될일이되며 될일안되나요?울지말구 힘잇는말이나 합시다

母 (順姬에게)울가는왜우러?

正浩 어머니는 상관마라요(順姬의손을쥐고) 누-누나나는 살것갓지안아요 정작만가니...... 돈이라도잇스면의사한테 한번만이라도좀뵈왓스면 좃켓는데!

順姬 그런말은왜하니?네가원이라면 엇덧케 하던지속보도록하지!

正浩 (큰소리로急히)아이구누나!누나!배가또!좀!좀!(呻吟한다)

順姬 (배를만저준다)

(母와朴청지 急히걱정으로 옳나와서 이곳저곳을만저준다)

母 어듸......

正浩 (말을못하고손으로 가르킨다)

順姬 (急하게밧그로나가 언되인가간다)

朴청지 順야!너-어듸로가니......

順姬 (나가면서)의사한테-(退場)

(그예朴區長이 들어온다)

朴區長 朴청지-잘잇나?

朴청지 누군지 들어오시요

朴區長! 나야, 잘지내가는모양인가?

朴청지 오-나는누구라구! 그저한모양일세!참오래간만에왓네나?

朴區長! 요사이 ...문안지해문에 떠날수가잇어야지!그래두하두온지가오래서 궁금해서와왓네?

母 참잘오셧습니다

朴區長 正浩는왜누어잇습닛까?

母 글세올시다 좀들어나오십시요

朴區長! 왜그렇케좃치못한괴석인가? 이왕正鐵이가감옥에서고생하는것을 생각하면뭘하나? 나올때가오겟지! 그런데正浩가어듸알치를안나?

母 (正浩를看護하면서 홍자운다)

朴區長 어듸를알습닛까?

朴청지 (한숨을쉬면서)말하면이가갈니여 참지를못하겟서요

朴區長! 누구하구싸원나?

朴청지! 아니야-正浩가병서근한달이나 커렇케알루잇지를안나?그런데뭐 체조라나?그것을하다가 싸무러첫다! 그래선생의말인즉영양(營養)이원지 부족하다구!자네도알다십히 요새모두가게죽을먹지안나?그래서그런자식실음을알을병이그만커렁케되엿지?잇는집에애들은저런병이업겟지

朴區長 잇는집아이들에게 영양부족(營養不足)이라는병이 엇슬리잇나 커런병이야우리들가치 먹지못하는집아히들이알치그런데 대단한모양이군

朴청지 순희가의사를데리고온다구 나갓는데 왜아직오지 안나?

朴區長 좀 멀지

正浩 어머니 어머니

母 정호야 정신을차려라너와 우리는사지、그러면엇덧케나? 종정신을채리고잇서라

(그예순희는 의사를 다리고 급한모양으로)

順姬 선생님 여긔올시다

朴청지 (일어나서 의사의손을쥐고급히) 좀 살려주십시요

母 좀 속히뵈주세요 지금또 갑작히 압흐다구 말도못하고 이렇케정신을 못채립니다

醫師 네 언제부터 알음닛까? (청진기를내며 진단한다)

부인아동

그늘에서陽地로

★一九三三女人의行進曲★

하인을업새고 집안일을자긔가보자

◇그리한후가계를정확히세우자◇

甲子幼稚園長 劉賢淑女史談

남에게 말슴을먼저 하기전에 먼저 커부터구하야겟나고 일반에게호소하게되엿습니다유치원幻稚園문제로날마다해매이고잇습니다 유치원 원사를금년삼월까지는 내여노치아느면 안될경우에달햇답니다 이것을 엇지하엿스면 조켓습니가 이문제때문에 엄외지우게되엿지요 속히해결이되여야 되겟는데 큰걱정입니다 그러고보니 무엇이라고말슴드릴용기조차업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슴하려면첫재로 제가항상생각하는 신녀청들의 심사를모른다는 것입니다그것은 무엇이냐하면 학교를나온 현대녀성들는 희창생활을할때에는 사회를위하야 일을하겟다고하며 또는 녀자들이웟치고잇는 녀자의경제적 독립가튼문제를말하야 가여히 그것을 자긔스스로가 못할것다고 하든녀칭들이 고만학창에서나아와서 결혼하게되면 과거의 말하든자긔의일은돌재로 자긔가 자긔의쎄계를 해결할만한 자격이잇스면서도남자에게 의뢰를하야잇게되니 공부하엿다는효과가 무엇이잇습니다를 론자녀를교양하는데는 구녀칭보다는 나겟지요

그렁으로나로서생각하는 바는 신녀청으로서 만일결혼을한다하드라도 될수잇는대로 일반사회를위하야 활동하며 또는남편과가티 직업선에서서 자긔의 생활문제를 자긔가해결하야 경제적독립을하도록힘쓰것스면합니다

그러고 가정문제에잇서서 신녀성이나 구녀성이나 구별을할것이업시 가계를 세워야하겟습니다 그러고부조현하여야만 하겟습니다 조선의 가정부인들은 한달에얼마식 가정살님 사리에 드러가는것을 예산치안코 무한정쓰게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몹론자긔가 경제적독립을 하지안코 남편이주는돈으로 쓰게되는것이 한갓 원인이될것입니다

그러고 집안에 하인가튼것도 잇는 집안의일은 자긔는방안에드러안자서 하인만 식키고잇스며 또는하인한사람에게 얼마가는것도모르고잇는것입니다 그렁으로 결혼부터는 자긔와 집안일을 친부자긔의 손으로 하도록하여야만하겟습니다 그래서 커는 멋날전부터하인이두어사람식잇섯는바 전부 업새고커혼자 아츰커녁을하며 그라일을합니다 보시다 심히아이들이커리케만치안습니다 그러고 아츰에는 유치원을가여야지요 아이들을 학교에보내야지요 그러치만 자긔의몸는 종부조현만하면 넉넉키해나아가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염해집에서도 커의집과가티 하인을업새고 부인이친부 집안일을 해나아가게 되엿습니다그러니 이문제에잇서서가정인부들은 좀깁히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사진은류현숙녀사)

海外뉴-스

미국크리스마스 저금오억불

첫달부터정월을넘치여경긔(景氣)가조흔것을보히고자함은인간공통의심리상태라그순리에이끌어나서군중의구매욕(購買慾)을이르키는것이실업가의장사스심리이다 그런데평상저금(平常貯金)으로만밥벌고크리스마스그붑을 조케하랴고생각하는것은이또한양키-들이다 아메리카에서는 크리스마스저금구락부(貯金俱樂部)이라고하야 平常의貯金을크리스마스前에 支拂하는機關이잇다 今年은약五億弗의큰돈이 一千萬人이상의예금자에게지출될더이다 이로서미국의크리스마스경긔(景氣)는 크게 떨치는모양인바그래도작년에비하면 약이할예금자수로서 一割도부터 一割五분이적다는고로견제로서의경긔(景氣)는아즉회복되지안은모양이다

심리작용은 병을나케합니다

누구나병이드른후곳진찰하며 의사와약을마음에미더야돼

(7) 醫學博士 閔丙祺

리침이나면귀관(氣管)이낫붐니다옴으로우름을놋흘하게됨니다이것은그의사가자새히롤나서그런것이아니라그만큼해두는것이환자와아울너 또이만큼대답할필요도사실에잇서서는 업지만 환자로서는 그병명을듯지안흐면 진찰한것갓지도안코 또 의사로서 그병명을말하지 안흐면 환자가그만큼아지롤못하는걸알므로그러케하는것입니다

그병명

을말하지안흐면 의사로서 환자에게 한만큼아지롤못하는걸알므로그러 이러케동증게하닙니다그러타고환자가작고뭇는다고당신이작고못하는것이병이오그병은 죽히스테리오하면그환자는반드시노할것입니다

그렁으로내가만일환자가되엿다면 의사가대답하기 곤난할만한것을뭇지는안습니다

이우에도 뭇고십지는안습니다 환자쎄이못는것과가티 의사는자긔가본 환자의 병명을잘말하지아니하는 습관이 업지안습니다 더욱학교를 졸업한지음에는사실 환자를너하드래도 그병명을확실이 감작못하는수가 만치만은 종 경험이쌔이면 그와반대로올메업는데까지 쉬험이 가는수가잇습니다 이것도 재작년에 당한일가운데 하나인데 엇던환자가급성 폐염과 심장병이드러서입원을 하엿습니다 그때그커페와심장이 압푸다고만 그랫드면그리 실패를하지 안홧것을페외엇던부분과 심장의 엇던부는이엿더케 병이낫다고

오히려

쓸데업는말까지히엿더니걸국그환자가 죽어서해부를 해본결과폐와 심장병이라는것은 틀린돈틀님업섯지만 그 낫부다고한심장의 부분은 그라상치안코상하지 안엇스리라고 생각하든다른부분이 병드럿든것을 발견햇습니다 이런것이야 그커우울우울해서어는 괴관이병낫다고만 그랫드면 그리큰실패를 하지안엇슬것을 잘난체 잘아는체하고쓸데 업는말까지 하게되여서 오히려 실패한것갓치되엿습니다 이런것도 죽을병이라면야 그진단이 올흔그르든 고만이지만 그병이 그리중치안은경우에는 그환자는 언제까지든지그의사를 불신임할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키때문에

의사는

흔이진단을바로말하지안코 그커당신는 심장이낫붐니다 혹은위가 종고장이 생겻습니다 씀으로 웃출호려버리면 조흘것을 악가말한것과가치 짐장병중에도 엇던부분 가령승모변페사부권(僧帽瓣閉鎖不全)이라고하는것이 잘못 대동맥변폐사부권(大動脈瓣閉鎖不全)이엿든수도업지안케됩니다 이것은 그걸과죽환자의 치료에에해서는 벌도장이업다 손치드래도 그환자가자긔이외에 다른의사를 차서갈때 그의사의진단과 자긔진단이틀렷슬적에 그환자는 얼마나자긔를 업수히 역일것입넷가그러키때문에 환자로서 의사에게학실한진단을 무를것은 업슬것갓습니다 그럿타고 또의사가넘우

환자의

뭇는말의대답을안하드래도 또그환자는그의사를신임하지안를것입니다 그럿키때문에 나더러말하라면 환자는 그진단에더해서 너무구해하지말고 그치료법과 경과 병의머한주의할사항등은 비교적 자서이뭇는것이조흥가합니다

라듸오

一月九日順序

午前八時○分 (A)라듸오體操
同一○時三○分 氣象通報
同一○時四五分 料理製造法 日用品市勢 京城府營水產市場發表
同一一時五九分 正午時報 뉴-스
午後○時三○分 琵琶
同一時一○分 家庭講座 正初行事와慣習(一) 李秉岐
同二時一五分 趣味講座 스키의實用化 大會京城支局渡邊
同四時○分 講座二
同五時四五分 뉴-스公示事項 歌謠紹介事項當
同六時○分 이야기 이야기 石井旅行
同六時二○分 (A)兒童新聞 村岡花子
同六時二五分 新春講座 滿洲國建設의合法性에對하야 法學博士泉哲
同七時○分 뉴-스 公示事項 翌日順序發表
同七時三○分 (A)產業뉴-스 (A)源氏節
同八時○分 (A)淸元
同八時五○分 (A)新講談福澤諭吉
同九時三○分 氣象通報
同九時四五分 短歌와倡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倡劇調 (가)春香傳中 離別歌 (나)沈淸傳中 泣涙中流 洪小月 鼓手 韓成俊 (寫眞無)

一月八日夜間放送

午後六時○分(B)라듸오新講者 六時二五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伽倻琴 鼓手朴鍾基 金一、散調二、倂唱(가)短歌 (나)새打令 七時○分 뉴-스 翌日順序發表 七時三○分(A)義太夫 九時三○分(A)時報經濟氣象通報

家庭講座 (午後一時十分)

『正初行事와慣習』 李秉岐

題目에쓰이여잇기는『正初行事와慣習』이라고하얏지마는正月元旦이되기前即除夕날의行事부터이야기하려한다

一、除夕에行하는일로말하면大晦日다음과갓트니、還歲問安 歲砲 爆竹 인등 擲柶 跳板 守歲 以上에對한由來傳說을말하고다음에

二、正月元日에는新歲問安 茶禮 歲粧 歲拜 歲饌、問安婢 歲銜 蒜神 歲畵 德談

三、正初間에는 寅日 卯日 辰日 巳日 子日 亥日 立春 人日 五行占 夜光 法鼓

四、十四日夜에서處容(新羅遺俗) 木胡蘆

五、十五日에는祈年 藥飯(新羅遺俗) 雜菜食 茶禮 放紙鳶 交鷄 各種遊戲 迎月 踏橋 石戰 索引戰

大體以上諸項에對하야三回에分하야말슴하려한다—完—

강연하는리병긔씨

兒童劇 아버지싸게파오 (1)

—全一幕— 고장환

人物 막동 막동의아버지 복순 수길(복순의옵바)

막동의집=마루와방문 대문과대문人간등

(막이열이면 막동이 마루압헤서서작난하며)

막동 『노래』

된영 따라다라랏다 라라라리라리라라 랄랄다 라라라 라라라다 라라라

된영 따라다라랏다 라라라리라라라라—

야-내가인케 얼룩농이가 가지고 (하고조희로씨에로의곡갈을맨드러쓰며) 이러구한번연극을한단말야— 에헴차리싹싹린이된단말야 (싹싹린흉용을함) (눈에다손을대어안경가티쓰며)또하롤드、로이드가된단말야 그리고또다그라쓰、페아방쓰가되어서 이러케칼쌈을한단말이야 (나뭇대어 ...어서칼가터취물드면) 다 그타스의해적선(海賊船)을어왓다 다 드되어 격투는시작되것이다 뭉뭉뭉뭉 된다 된다아-이것도집어처고 이케는 노래나한번불러주자

『노래 황청넷터에 밤이되니 월색만고요해......

여보세요 왜요러케놀여주세요 나도연극단배우나되엿스면..... 아-오늘극장에서 조흔것을한다는데 애욱가봐야것는데......돈이라고주어야지 오백번말해야 겨우오컨 그까진오컨 가지고무얼해 에뢰된 뚱뚱운 아버지니간그러하지.... 예라 고만두어라 정칭것 우리아버지누가안사가나 아버지나딸아먹게 올치됏다 대문간에다 광고나하나써무처야지

아버지 싸게파오
사갈사람은 들어오시오-

아버지업는아이는 혹사갈시울나 돈밧으면연극장구경가고먹고십흔과자와 사탕을 사먹노사먹고 또그러구그러구 (크게) 아버지싸게팝니다사가슈- 싸구려싸구려 아버지가싸구려 업나업서 아서라망햇다 고만두어라 낫잠이나한잠자구 (마루우에쓰러저잠이든다)

(좀잇다복순이와 수길서로억개에손잡고노래하면서나옴) (처량하게)

『아버지 아버지 어느곳에
이두몸 왜두고 가섯나이까
아버지 생각만 간절하여요
어머니 어머니 어느곳에
이두몸 왜두고 가섯나이까
어머니 생각만 간절하여요
아버지 어머니 어느곳에
이두몸 왜두고 가섯나이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만나요

복순 옵바 엇더커우 아주머니집에선 작구나가라구 그러구 어듸가자우 왜우리를애계 어머니도업고 아버지도 안계시우

수길 글세큰걱정이다그집도어려운데 우리가 밥낫못허잇는것도안된일이야 그집에서 그러케 구는것도 무리는아니다

복순 옵바 나다리가압파여기서쉬고가겟수

수길 그래 좀쉬엇다가자 여기안커서 (돌는영바닥에쉬고안젓ㄴ) 나는어느집에든지심부르든이라도 가겟지만 니가걱정이야

복순 옵바 그래두 남데리구단여야지 난몰두 나혼자엇더케 어듸가잇수

수길 글세말이다 엇더커면조흘나아

복순 (광고를발견하고)옵바저긔광고가무어유

수길 (이러나서)무어어듸커거

복순 (가서)이거말유이게뭐유

수길 응아버지싸게파오 살사람은드러오시오

복순 아버지를싸게판다는광고다

수길 아버지를 싸게팔어 누가사람도파나

복순 엇던아버진지갑이얼마래

수길 글세 이상한일이다

수길 싸게 판다기만하구 갑은안썻서

차파리 ＝영국런돈에는 사진과가티차파는사람이 길거리로다니면서차를팔게되어 한 이야기거리가되엿다합니다

新刊紹介

第一線 ‖新年號‖ 누구定金融組合이냐、趙炳玉論突西史話、齋藤內閣의運命、歷中親善과極大、世界大戰前과現의그뒤消息(新幹會、槿友會、民立大學、普成專門、東京鐵)모던春香傳 緊急召集合痛快膝 附錄現代東亞思想家列傳 在價三十二錢發行所京城府堅志洞八八開闢社振替京城八一〇六

◇아이생활(新年號) 새해선물노 웃어른이주시는말슴 독자의새해결심 아가페이지등滿載 定價十錢 發行所京城鍾路二丁目一三九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宗教時報(一月號) 定價十錢 發行所京城鍾路二丁目九一耶蘇教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振替京城一七二七八番

◇法政新聞(一月號) 定價二十錢 發行所京城太平通二丁目八五 法政新聞社 振替京城一七一五番

◇東洋通信(一月號) 定價十錢 發行所東京神田仲猿樂町東洋通信社通信部 振替東京八〇四四番

◇女性の時代(一月號) 定價二十錢 發行所東京市牛込區原町三の十一女性の時代社 振替東京三〇七五二番

◇時兆(一月號) 定價十錢發行所京城東大門外淸凉里時兆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明日 (40)

崔獨鵑作 安夕影畵

우서운계획 (二)

압마당으로 후정으로 차자보아도 신철일행이 보이지안음으로 청년들은 밤그시 열년된돈을 나서서 산으로 기어올릇다 웅게맛년 꼴자기의어름이 못밟길에 짓밟히여 요란한소리를내이며 부서진다

『최—기들 잇는구나』

한청년이 이렇케 웨치며 가르치는 크다란 솔나무밋헤는 신철의 일행이그림자의 목금처럼 모혀서잇는것이 보이엇다

『대체 이밤중에 무슨청승으로 산에를 올나와 잇슴닛가?』

『련애들 하는게지』

『련애 련애를 하기로서니 하필 이추운데산에 오를필요가 어듸잇나?』

『련애라고하는 유희는 신비와 모험을 조와하는것인줄을 모르나』

『그리고 또눈물과 질투를 밥식으로삼고......』

『아 이사람들아 우리 가련한 인생의해부와분석을하러온것이 아니라 그건 바에그것은한당이라는것이야그보다도 어서 쏘차올나가서 련애집회 해산을식히고우리의할일을하세』

한청년이 어듸까지 버티갈시보르는 련애당을 솟허버리려 손을내저으며 이러케말하엿스나또한청년은 다시그이야기에 쓰리를붓친다

『대관절 커기에 녀자가넷사내가 들인러인데 그러면사대이(四對二)로는 련애유희가자미롭지못할러인데』

『걱정 픽도하네...넘어지들은 옵써—버인게지』

『하하 련애의 옵써—버라 그것은 국케련맹에서의 미국의 존재보다는 좀더귀치안은것이다』

『신군의상대가누구여?』

『자작영양이지 아모래도 그런상성호는걸』

『자작영양과 무명회 간무와의 련애관?』

『쏘베트와미국의악수야』

이야기는 갈사록 딴궤도로탈니려한다

『글세 아사람들아 그만하고 또차가보자는데그런네그려』

련이라는 청년은 화를버너십히하고 일행을 버서나서그들이 모혀서잇는편으로가며

『여보게 신철군—』하고 웅청을 급한녀로줍히여놋럿다

『눈청년들도 모ㄱ 뒤를 따랏니

솔나무 뒷헤 모혀섯든 신철의일행은 의외의습격으로 마춥내 호려지지 안을수업것다

네녀자가 꼴자기로 내려집안으로 들어간뒤에는 아욱한솔정자밋헤는 병섭과 신철이들합진 일행이 어둠속에모혀스게되엿다

『신군 지금까지 자네특차즌것은 다른게 아닐세우리들이 구체적으로、의론하야결정하려는、그일을 오늘밤이괴회에 재획과 순서를세워보자는말일세 아니 세워본다기보다드 실행에 착수를하자는말일세』

권이라는 청년이 신철의엽흐로 밧삭다안스며 발언을난다

『웅 매우 급햇지 앙력 년말안으로 실행한다는 것이 그러케못되엿스니 이제는음력년말안으로라도실행을해야지

신철이가 동의를하니 리(李)라는청년이극히나속한목소리로

『우리가그돈을 준비하는데에 방법은 엇든것을가릴까가면커 결정할문제가아닌가?』

하고 신과권을번가라건너다보다

『물론 즉접수단이지 그외에야딴도리가잇나』

『그보다도 좀더약은방법을연구할필요가잇서 만일에못삽히드래도 그일을 실행할수잇는리한방법이생각하면업지도안을것갓든데......』

『잇슬냅시도 모르는것을 연구하고 잇기에는 우리들의일이 넘어급하지안은가?』

『그럴바에는 차라리 아모래용도 사상적배경도 업는것으로하고 거사하는편이도리혀 법륙적재제를 가벼게바들수잇다는것을 아커서는안되네』

『그러면 우리들이 책임신그왜수들 제각기얼마식이라는평균이갈나가지고 케순단欠해오도독할것인가 그러치안으면 우리가 집단적으로크게 써들어서 해몰것인가도결정할필요가 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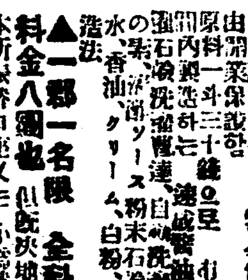
『암 그러치 그러니까 내생각 갓태서는 각자가 자긔의 책임액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으도록 하는게 조흘것갓태』

『아니 그것은 시일이 더걸니고 또 발각이될 가능성이만흐니까 집단적으로 크게 해치울 방법을 취하는게 조흘것갓흔이......』

의론은 구구하엿다 어데에지금가지 침묵하고잇든 병천이가 빈로서 입을연나

『가만히잇게 내가 지금좀생각한비가잇스니......』

朝鮮總督指令第一三二四號 專賣特許第二七〇三號 何人이라도容易製造할 安全確實 新職業



發明者 所長 金信浩

▲月收二百餘圓確實 傳授會一見 一日間內全科目容易修得無稅無許可自由開業保證

原料一斗三十錢으로 速成醬油及各種洗滌劑、石油洗濯劑、化粧石鹼、の素、ソース粉末石鹼、水、香油、クリーム、白粉、美顏水、速成造法

▲一郡一名限 全科目傳授會傳授料金八圓也

本所振替口座又는小爲替로送金하면 金次第支店長辭令書全科目傳授證書一切送呈함

▲十五斷以上利益잇는洋酒(ウイスキ ブランデ カクテル 麥酒 葡萄酒 藥酒 濁酒、日酒改良法을無料傳授함) 此際本所全科目傳授分擔을受한人에게는(酒稅令에抵觸치안는) 朝鮮洋酒新釀造法別定傳授함 (特典)

各府郡島及權要地支店長大募集志願者는 料三錢切手를 付送하면 規定書送呈함

各種食料品 一傳授一元租 化學工業品

公開 發金方法

廿圓資本으로

朝鮮中央化學工業所 京城府雲泥洞十三番地ノ一號 振替口座京城五九九一番

○近日發明한コシ味噌 四季 好適 飲料素 湯物素 (김치맛좃케하는鹽造法別定傳授함)

◎注意近來有名無實한○○○工業所云云商號에見欺치마시오

◇女子事務員數名募集 右志望者는自筆履歷書攜帶來談할事

山東紬 (실기기론牛皮갓고、색채로난美麗한軟黃色 감할하기론眞木同樣)

三大特色 廣文 木價 보도 다난

(本洋行異體貨商鞘請求無代進呈)

驚 山東紬 산동주

長四十八尺 幅一尺 四寸바지三件分 一金七圓五十錢也
長廿八尺 幅一尺 八寸五分 바지三件 半分一定 一金七圓也

本洋行 (兩國海關稅自擔 全部先金送料自擔) 勿失此時
三大特典 (多數所用價格相談) (品切勿後悔 存貨不多)

安東縣 (人口西 邊市街) 國際洋行織物部

朝鮮名物 실고초 (松印 一斤半斤 五斤箱入) 內地在外地進物에는第一 珍貴한刻唐辛子

今村洋行 京城鐘路 電話光化門九六番 振替京城二〇〇二番

保健 治療 催眠 生食法 心療術 審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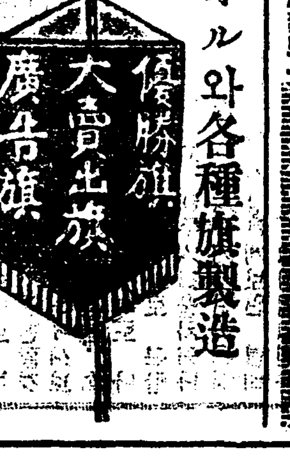
希望人은今大邱士修習會로至急 ... 京城新設里 ... 修養會

肥滿劑

身體瘦瘠한데여러가지撤藥도無効하야困難한분은藥害로申請하면胃腸은健全히하며害업시身體肥滿하게되는妙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三川區大町小川藥局

皮膚科花柳病科 醫學博士 吳元錫 產婆 金○娘 京城安國洞네거리 電話光化門四一六番

▲印入タオル와各種旗製造



優勝旗 大賣出旗 廣告旗

東洋染織會社 捺染部 京城府長沙洞八十番地

創立明治參拾貳年 倉庫業兼營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本店 京城南大門通

歷史깁흔一新女高 公立說로紛糾激化

學生喪章問題가導火線으로

金氏一派策動猛烈

【晋州】 문제가문제를낫코분규가 또분규를만드러 조금도쉬사이업시 말성가운데 성장하여오든진주일신녀자고보（晋州一新女子高普）가필경 최후의운명에귀박하고만 셰음인지 공립운동설（公立運動說）이머두（擡頭）하여진주（晋州）를 위시한 일반사회유지측에크다란『쇽크』를주게되바 그내용사정을 일반여론파아울너 탐지한바에의하면 대략다음과갓다한다

問題의激化는 學生喪章問題

동교학부형회는 쟁사이업시 파벌분쟁（派閥紛爭）만일삼어오든중에 마츰동교창립당시 칠만여원의 거재를긔증（寄贈）한허만정（許萬正）씨선고허준（許駿）씨가 별세함에 작년구월하순경에 장례식을 거행하엿는바 동교백남훈（白南薰）교장의발의로우리학교의 은인이요 유력자라하여반드시경의（敬意）를표함이당연하다하고 학교직원급학생일동이 강당에 집합하야 묵도（默禱）를한다음각급（各級）에두사람식대표를 선정하야 상장（喪章）을부치고 직원일동파가티 고긔고허준（故許駿）씨의장례식장（葬禮式場）에집합하야 조의（弔意）를표한것이 일반학부형측에 사실이외파가튼처사에 반대를하고『수업료바치고 수학하는 학생을시켜 조상까지한다』는것은절대 불가한일이요 동교를위하야일한공로자로서 이미 사망한자가 만치마는 아즉학생을시켜상장（喪章）을부치게까지한일은업다—』라는 항의를진술하는등태도가매우강경하야 이사건을발단으로 학부형회측은 일층긴장하야 작년십월이일에 학부형임시총회가개최되엿든것이다

學父兄質責에 白校長의陳謝

긴장한속에 진행되는 이날총회석상에서 일부학부형측의 학교당국에대한 과격한항의에 백교장은 일후문제를 업세기위하야모든 행동에불충분하고 미급한점을총회석상에서진사（陳謝）한결과 장내의공긔가 다소안화되중에 폐회하엿는데 그후다시동교학부형회의국외인（局外人）인감갑순（金甲淳）일파가동교장의진사에 불만을가지고 암암리에책동을하여 동월이십삼일에다시 학부형을소집하고 총회를개최하엿는데 이날의총회는 외외에도 협약안공미에 차이여젓든것이다 총회의 석상에서

一、白校長의自決을期한다

二、財團役員의反省者要求한다

하는외안（議案）을걸고토의가진행되엿는데 실행의원에 김갑순（金甲淳）최두환（崔斗煥）정창와（鄭昌和）정동석（鄭東錫）등오인이 선정되여 동회의를집행케하엿다 그후 정동석정창화량씨는사임하엿다는소문이잇다 그리하야 전긔실행위원은 사실의 소정（調停）파키단（處斷）에만방으로활약을개시하는 일방 동교장을방문하고—동교재단（財團）에대한 우리들의 요구만드러주면금번 상장문제 （喪章問題）는그 교환조건으로 묵살하겟스나 교장의로력을바란다라고 까지이야기가진행되엿다

財團喪章問題 混同은不可타

그러나 상장（喪章）문제와 재단（財團）문제는 그문제로서의 본질이다르니만치이（喪章）문제로서재단문제에 까지 관련시키는것은 일이정당치못하다하야 전긔위원측의 요구를 불청하엿다 그리하여 그후륙일을 지난동월이십구일에 학부형회를 다시속개하엿는데 실행위원과 학부형대표측에서 『교장의자결（自決）문제에관하야 당분간 회답을보류하라』하야동교장은이것을승락하엿든바 그후 다시동실행위원측에서는현재동교의재단역원（財團役員）에대하야김과래（金璂部）금하영진（河永珍）양파의현간부（幹部）오인식을사임시키는동시에 자긔네들의 지시에의하야 임원을선정하여 달나는요구를 절한긔긔양파（兩派）측에서는 동교긔부행위개정안（同校寄附行爲改訂案）을조건부로요구에승락하엿다

金甲淳一派의 公立運動擡頭

그리하야하영진씨파（河泳珍派）정동석（鄭東錫）이하사명과김긔래씨파의• 강모（姜某）이하 사명이 전긔조건부로 사임 （現理事長 金琪部及 常務理事姜周秊氏等도同時辭任） 하엿든바김갑순측에서는 금일까지의모든문제를 청산하는동시에 현일신녀고（現一新女高）를사립（私立）보다 공립（公立）으로하는것이어느편으로보다유리하다는 조건（？）으로암암리에공립운동동지규합（公立運動同志糾合）에매진하며일방으로는하영진（河泳珍）씨파의모든행동을공격하도록여론（輿論）은심각화하게되엿다이중대사건에대하야 요직에잇는이들의의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갓다

金氏主動으로 現職員을排斥

김갑순파의 공립설에 분개한하영진측에서는 그후 조건부사임을내용증명（內容證明）으로취소하엿다하며 교장의 진퇴문제로서 하씨파는문제를 두중하게생각하고 잇는모양이요 김씨파에서는 『현재학교직원은모다신진（新進）이 아니요 공연히만흔월급을 치르고 또학급편노보아직원이 사실조과인것등 조건이모다 학교재정상여간 손실이안이니 재정을위하야 또는신진하는학생들의 적합한시도를 위하야는 신진청년교원자를 채용할이조라는 의견으로 현교장을사임케하려고하면서잇는중에권긔상장（喪章）문제가돌발되여이것을동긔로 하씨일파를 억압하려는동시에 교장의 진퇴문제를도공화시킨것이라한다

公立運動으로 紛糾防止美裝

그런데 지리다단한 문제가아즉아무런 단락을보지못하고 학교의운명을 커주（詛呪）하는 분규문제를 청산（淸算）한다는정책으로 공립운동은을 표현화시킨이 가장적합하다는미명（美名）을압세으고 여러가지 책동을하는 김갑순（金甲淳）일파의행동에 분개한 정동석（鄭東錫）정창화（鄭昌和）씨등은모다사임을하고 말엇스며 현재는긴긔김갑순일파의 독무대로 복안을계획하면서잇다한다

愁雲이低迷한 一新女高前途

그리하야 작년세모에 학부형회를 연다는말이 자자하엿그스나이래 아무런 실행을 보이지안을뿐만 아니라 리사회（理事會）의 사무소를동교사（校舍）로부터 다른데로이전하여두고 비공식적으로 잠행운동을계속한다는데 날로복잡화하여 갈뿐인 일신녀고（一新女高）의운명은어데로 기우러질던지 쉐인의주목을힘엇습고잇다

三百餘女職工 盟罷依然繼續

歐打廢止等九個條를提出

東洋製絲盟罷詳報

【鎭海】 경남 진해읍 경화동（鎭海邑慶和洞）동양 제사공장（東洋製絲工場）에서는삼백여녀직공은 지난사일오전 륙시반경에작업을 시작하는시간부터 돌연동맹파업을 단행하얏다 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이에대하야 공장에서는 조조부터 공장정문을 굿게닷고 일절출입을 검지함으로현장의 자세한광경은 알수업스나그원인을 탐문한바에 의하면지금부터 삼년전 긔공장이 설치될당시부터매일십이시간이란장시간 로동에임금（賃金）은 겨우하로 평균십이삼전에 불과할뿐아니라 매일작업에도 청격을보게되야 조금만 잘못되면이잇스면 그공녀에게는 당일임금보다이상되는 벌금（罰金）을 밧게됨으로 십전내외에 임금도완권히 밧지못한다하며 게다가며우에대하야도 매우가혹하야 조곰만잘못이 잇다면 구타까지함부로하게되야 공녀들중에는 구타를당한 아해가만타하며 또음식에 대하야도 밥은 그만두고라도 반찬 가튼것은 도저히 먹을수 업슴으로 집이갓가히 잇난아해들은 자긔집에서 찬을만들어다가 먹는아해가 만흐나집이먼곳에잇는아해들은그리도하지못하고 적지안이한 고통을것기고잇다한다 이런것이 동긔가되야 지난해십이월경에남공（男工）을중심으로동맹파업을단행코자하다가 미연에 발각되야실패를당하고 금년새해 파업당시에 제출한요구조건은 다음과갓다한다

◇要求條件

一、勞働時間은十時間으로할것

一、日給은最低로二十五錢으로할것

一、飮食은激婦及監督과가티할것

一、罰金制를撤廢할것

一、工場內疾病及負傷은工場에서負擔治療할것

一、毆打를廢止할것

一、犧牲者를내지말것

一、現業長美某를逐出할것

一、電氣를自由로使用케할것（現在는午後九時半에消燈한）

要求條件은 聽許不能 紫芝工場長 談

금반파업에 대하야는 예상치도못한 돌발사건입니다 보사의의견을듯지안코는 좌우로 결정할수업스며 현재로는 그조건들을어줄가능성도 모히지 안습니다 현재사업은 계속하야 실지로는늘—손해입니다 그럼으로 공장에서도 여러가지로 협의한결과이와가치 분규를 계속하가보다차라리 휴업을하는것이 리익이되겟습으로 부득이 오후사시경에파업한직공에게 최후로 다시복업할 생각이잇거던 십일오후세시까지 공장으로오고 건연히올생각이 업거든 본월이십일까지 임금을차저가라고한후 자긔집으로보내게되엿습니다

被檢者釋放을 職工들이呌呼

畢竟釋放應諾어더

당지경찰서에서는 주모자를 검거하엿든중 경찰에 검거된녀공들은 리정수（李貞守）（二六）김복나（金福伊）（二六）김또칩（金且點）（一五）삼명만남기고권부석방되얏다는데 다른직공들은 진해서에 경거된 동무를 내여달나고경찰서로 쇄도케되얏다 도중에서케지하는 경관에게 검거된동무를 내여주지안켓거든우리도가티검거하여달나고 발악을 치다가오후세시에 내여준다는 승락을밧고 서야 돌아오게되엿다

煽動嫌疑잇는 靑年二名檢擧

警察은背後를嚴探

【鎭海】 별항보도와가티경찰에서는 금번파업이 배후에엇던선동자가잇슬것이라하야배후를엄탐중이더 그험의로경화동（慶和洞）정해인（鄭海仁）웅천（熊川）조동규（趙東奎）두청년을지난사일오후에검거하야목하엄중취조중이라하며또석리（石里）배소갑（裵小甲）이란청년의행방을엄탐중이라한다

파업에 참가한 녀공들은전부숙련한 공녀들인테 총수가 이백륙십여명에 달한다하며 현재작업을 계속하는 직공들은한사십여명되는데 금년에 신입한공녀들로서 아즉 숙련치못한공녀뿐이라한다

每日賃金은 平均十錢

罷業女工 談

하로열두시간일을하는데아츰에는 다섯시반에 일어나지안이하면 여섯시반에 시작하는일시간을 마츄지못합니다 이러케지리한 시간에 하로임금이란것이 겨우십전평균도 못됨분안이라 음식이란것은 사람으로 참아먹지못할것을 먹고엇지일을하겟습니 가게다가커의들이 식히는데 조금만잘못하면 벌금을매고 함부로구타까지하니 제집에서 굴며죽을지언정 이런서름을 언케까지당할수 잇습니가 경찰서에서는 누구가쉬힌 사람이잇슬것이라고 말하나 우리는누구의식히는말을 듯고한것는절단코안입니다 그학대를 견대다못하야 부득이 일어난것입니다 우리는제출한 요구조건을듯지안이하면언제까지든지일을하지안이할결심입니다

咸南新興에 農業公民學校

지난사일부로인가되여

【新興】 함남신흥군 （咸南新興郡）에공립농업공민학교（公立農業公民學校）의설립의건은 재작사일부로 정식인가되어 목하그생도를 모집하는중 이라는데응모생도수는 벌서모집 정원에몃배늘초과 하얏다하며 수업년한은 본과이년 업무과일년제월로농업 경영상의 필수학과를가르친다고한다 동학교외 긔본금은 조선질소회사（朝鮮窒素會社）가신흥에수전공사（水電工事）를이르킬당사 신흥군민에게소위사례금으로준 문제의 이만오천원을 충용한것이라고 한다

郡是職工中心의 前衛同盟事件

前後三十餘名檢擧

四警察署分擔取調

【全州】 작년십이월전주（全州）야치이카에관계되야검거망을돌파하고 망명중에잇든 한종식（韓宗植）을 전북경찰부 에서검거하여 엄중한취조를 거듭하다가 마참내 대전군시제사공장（大田郡是製絲工場）을중심으로조직되대전전위동맹（大田前衛同盟）이라는비사（秘社）가꼭로되자 여기단서를어든 경찰부에서는즉사대전에로출장하야대전경찰서의응원을어더신문배달부（新聞配達夫）행상 （行商） 직공（職工）등이십여명을전주로압래하야다노코 엄중한 취조를하는중이라는데 금번사건은전주（全州）야치이카사건으로방금전주형무소（全州刑務所）에잇는김문옥（金文玉）김철주（金哲柱）김규선（金圭鮮）등과도 밀접한 관계가잇는듯하며또경성김창수 （金昌洙） 등의공작위원회재건사건（工作委員會再建事件）에도관계가잇는듯하다 고한다

또는 동사건은 날이갈수록확대되야 지난달이십구일에 또다시대전으로부터 십오명의 청년을압래하야리리（裡里）김제（金堤）임실（任實）전주（全州）의 사서（四署）에류치하고그간은년말년시관계로 취조를안타가 지난륙일부터 다시엄중한 취조를진행중이다는데 관계자는한종식（韓宗植）륙득（陸得）외삼십칠、팔여명이라하며 송국은 아마 삼월중순에나하리라한다

城津洋襪職工 盟罷依然繼續

警察은職工三名檢擧

【城津】 긔보경진사개양말공장직공 삼십여명이 양말한다스수직료 재래의 십수권을이십오권으로 인상하여달라는것을 요구조건으로 지난일일부터 맹파를단행하엿다한든 일반이 주지하는바 사개공장주인들은 긴급회의를열고 그대책을 토구한결과 이긔회에재래의 수직료십수권에서 오히려 일권을인하하기로가결하고 그대로 직공측에통지하는일방 견습생을 모집하는등 상당이강경한태도를 취함으로 맹파는 의연계속하는중인데 이에경찰서에서는 지난 오일에직공측으로박성만（朴成萬）외이명을 검거하고 공장주를호출하야 그진상을 조사중이라고한다

汽車가轢人

長城黃龍橋에서

【長城】 지난사일 오후 세시반경에 나이사십칠팔세 가량되여보이는녀자가장안리（長安里）압 황룡교（黃龍橋）를 건너가든중 마친장성역착 세시삼십일분게삼백십삼호 렬차에 치여무참이도 즉사하엿다는데 주소도불명 성명부지라는바 원인는자살인것갓다고한다

選擧名簿作成에 奔忙한平壤商議

【平壤】 평양상공회의소（平壤商工會議所）에서는 삼월삼십일 로된것인바 대략유권자수도 륙백이삼십명정도로 립후보자（立候補者）가 삼십사오명이라하면정원삼십명구표내외로되고 이삼십표만밧으면 당선 범위에들어갈듯하다

선거취체규측（選擧取締規則）은 금번공포된 지방선거취체 규측과 동일하지마는 부회의원선거당시와가티 립후보자의 계출은 하는점에대하여서는 출마의사가업는사람의 당선을 예상하고 회의소령편으로서는 다소 곤난한 정도업지안타한다 하여튼유권자수에서 다소 손색이잇는조선인측에서는 립후보자의 선택급배표（配票）등에대하여중분연구업힘필요가 지아라고한다

新正의春光도無色

灰色世界의斷末相

食刀로威脅코 現金百圓强奪

海州郡月祿面에서

【海州】 지난륙일새벽두시경에해주군월록면사천리（海州郡月祿面沙川里）류삼현（柳三鉉）방에조선 [illegible] 막이에 목추모를쓴삼인조가 [illegible] 가 침입하야 주인류삼현씨는업고 류씨의 안해조씨（趙氏）（三三）을식도와전등（電燈）으로위협한후 현금일백팔원을 강탈도주하엿다 이급보를드른 해주서에서는 목하범인을엄탐중이라한다

宜寧에短刀强盜

범인은절도전과자로판명

夫婦就寢中에襲擊

【宜寧】 경남의령（慶南宜寧）에서는근일에 강도사건이 빈발하여인심이 매우불안에 싸여잇다고한다 지난달 이십일밤에는의녕읍동동리모（李某）의정미소（精米所）에칩입하야위협하다가목적을 달치못하고 다라낫스며또삼십일 새벽에는바로 의녕읍내시가 중심지인 김모상상 （金某商店）에도수상한행동을하고갓다든바 다시지난사일 오전한시경에는 의녕면상리（宜寧面上里） 림룡순（林龍俊）양조장（釀造場）에칩입하야단도로써위협한후현금 십오원가량을 강탈하고다시 주인림모의내외를 이불을뎝허쓰라하고 방에드러와 탈취하려든중 엽방에 자든고인이

驪州에小火

【驪州】 지난 오일오후 십분경에 려주읍홍문리（驪州邑弘門里）이백십륙번지 음식점김재옥（金在玉）의집에 불이나서 초가일동오간이 반소되엿는데 소방조의출동으로 약한시간만에 다행히 진화되엿스며 그원인은그날은 려주장날임으로 권긔김재옥의부처는 시장（市場）에 로점（露店）을내이고 음식물을 팔기에분주하든중 집에남어잇는 그의딸이 저녁밥을짓다가 잠간방에들어가든에 네살된 어린아이가 불작난을하다가 부억에싸힌나무에 불이부튼것이라 한다

刑務所서謀議 出監後竊盜

◇犯人兩名은逮捕

【釜山】 지난달이십이일밤새벽두시경에 부산환머세탁소（釜山丸大洗濯所）에서양복과기타의류（衣類）시가사백오십원어치의세탁물을 일허버린 절도사건이발생되야 경찰은 이래동범인을엄탐중이든바 지난오일 오후칠시경에 동범인 두명을구포역（龜浦驛）부근에서체포하고방금엄중한 취조를 진행중이라는데범인는본적을경북경산 （慶北慶山）에두도방금부산초량정 （釜山草梁町） 에주소를정한구암대（具岩大）（二七）와광수 （光州） 출생으로아즉주소가부정한박말길（朴末吉）（二六）이란자로서각각지난달에 부산형무소（釜山刑務所） 에서복역만긔출옥한자들인바 동범행은 복역중서로친한사히가되야그곳에서계획한것이라하며 단도한개식을 각각소지한것으로보아 강도의 협의도업지안타한다

芙江에벼盜賊

전과삼범악한

【芙江】 충북부강 김국배（金克培）의집에 지난이일오전일시경에 절도가침입하엿는데 이자는본적을 경긔도수원군 장안면사고리 （京畿道水原郡長安面沙古里）에두고주소가 일정치안은최응삼（崔應三）（四三）이라는자인데 피해자김국배의집에서 벼다섯가마니를 훔쳐서 시장오관호（吳寬鎬）정미소에서팔미로외어서 장날에팔고 두번재벼를쇠터갓다가 당지주재소원의 활동으로삼일오전열한시경에체포되엿는데 전과삼범의 악한이라한다

開城人蔘 歲月만난

공급부족될듯

【開城】 작년도 백삼제조고（白蔘製造局）그수량이재작년보다만하 십오만 일천삼십구근이라하며 근일의시세는 초가을보다오른결과 방금 남조선각지에열고잇는약령시（藥令市）의시세도조흥한아니라 각지 약령시로부터 주문이쇄도하야 지금재고품은 약칠만근가량으로는 공급부족이될 형편이라한다

妙齡寡婦를絞殺後 自殺體처럼僞裝

범인은도망중에체포되엿다

原因은痴情關係?

【海州】 황해도평산군린산면허사리 （黃海道平山郡麟山面許沙里） 리길환（李吉煥）（三二）이라는 자는작년십이월 삼십일밤에한동리에사는안도운（安桃雲）의쳐김소사（金召史）（二一）는년이십세의 녀자를김씨의 남편안씨가업는틈을타서 죽인뒤에 스스로목을매여 죽은것처럼 하여노코행방을 감추어 평산군신암면남산리（新岩面南山里）우보（禹某）방에잠복하고잇는것을탐지하고 지난이일새벽 한시경에평산경찰서 형사가 체포하엿다살해의동긔는 범인으로부터 용이히자백아니함으로 아즉 확실한것은 일수업스나 피해자의년령과기타 여러가지를 미루어보아치정관계로 볼수잇는데 이해자김소사는 그동리에서 미인으로평판이놉흔녀자라한다

靑丹市에竊盜

【靑丹】 지난사일오전세시경에해주군추화면청단시（海州郡秋花面靑丹市）조상익（趙相翊）의집에는 절도가 침입하야슨게잠긴 빈지문을 교묘히열고그안에들어잇는 광목과 기타여러가지물품을 도적하야가지고 막다라난뒤로 마츰 야경단（夜警團）원이 그집앞을지나다가 문짝이열여잇는것을보고 주인을 차저조사하야본즉 그안에 들어잇는물품은 전부업서지고 도적은발서종적을 감추어버렷다 이급보를들은 소관주재소에서는 즉시야경단을 인솔하고 범인의종적을수탐하든중 날이밝은뒤에 그집뒤밧가운데서내버리고간물품을 차젓스나 범인의종적은아즉알수업다한다

千佛山은三倍擴張 興南에는製鍊所

一般鑛業界의期待가크다

【新興】 신흥군원평면천불산（新興郡元平面千佛山）에잇는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신흥광업소（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 新興鑛業所）에서는 총독부보류광의불하를바다 채광에착수한지 수년에 그업적이정축으로 진보하야부근일대로하여곰 금전한 현영을보이게하고잇는것은일반이다아는사실이거니와이제그광산의부속으로함주흥남읍（咸州興南邑）에대규모의제련소（製鍊所）를두기로되여불원간공사에착수할형편인데이제련소는그금광

延白密酒罰金 千六百圓巨額

農家의注意가必要

【白川】 황해도연백군 （延白郡）재무계에서는 군내작년중에농가에서 조선술을 밀조하는것을발견한 건수가 륙십사건에벌금액이 엄청나게 일천오백구십원이라는데 인원으로는 륙십사인이라하며 매개밀조하다가 발견되는사긔는추수긔라고하는바일반농가에서는만히주의함일이라고한다

長淵의年賀狀

虛禮廢止運動비웃는

昨年보다五萬枚激增

【長淵】 황해도에서는소비절약（消費節約）허례폐지 （虛禮廢止）장려의한가지로년하장폐지를주군면에 명령한 금년도의장연군내 년하장통계를 조사하여보건대 엄청나게도 작년보다 증가하야 장연에서 타처로발송한것이오만구천 이백륙십매 이오타처에서 장연에 배달된것이삼만 륙천팔칠십매이라는데 작년에비하야타처로 발송한것이 삼만오천 오백여매 가량증가되고장연에 배달된것이 일만륙천오백매가량 증가되엿나 한다

宜寧農組員 李守奉氏出監

【宜寧】 경남 의령군낙서면（慶南宜寧郡洛西面）일대에지난해봄에 소작쟁의사건으로 피검된리수봉（李守奉）씨외십사인이진주지청（晋州支廳）에십에회부되야 이래십개월동안을 미결감에서 신음하다가 지난달이십일일에 십사인은 집행유예로석방되엿고 리수봉씨만은 징역칠개월에 미결통산백일을하야 십이일간처형을밧다가 지난 사일에 만고가되여 출옥하엿다 한다

靈光에雜貨强盜

嫌疑者三名被逮

【靈光】 일월삼일오전두시세상은 다고요히 잠이드러새해의행복을 꿈꾸는때 영광군영광면덕호리（靈光郡靈光面德湖里）잡화상（雜貨商） 황남용（黃南用）（二○）의집에는 수명의 강도가침입하야 이십원가격에 상당한잡화를 강탈도주하엿다는데 이급보를드른 영광경찰서는 현장에급행하야 엄밀히 수사하든중영안면 단수리（丹朱里）김판수（金判洙）（三）법성면머덕리（法聖面大德里） 김량오（金良五）（三○）광주군송정면송정리 （光州郡松汀面松汀里） 오권안（吳全安）（二七）등세명을체포（한명미체포）하야목하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林巨正傳 (30)

洪命憙 作 / 安碩柱 畵

박유복 （三의六）

유복이가 고서방의장인 큰굴 로훔치란자가 빈틈업시자긔의원수인것을 알고 밤에는곳 그시각으로 큰꿀을 또차가고십헛스나 급한맘을 가려안치고 텬연스럽게 안젓것다 밤이 이슥한뒤 놀더왓든사람들은 어른아히할것업시다각기돌아가고 유복이와 김서방과단두사람이 가치자게되엿는데김서방은 누으며바로 잠이들어 드르렁드르렁코를 그리고유복이는 이생각 저생각 또각생각이 머리속에 오락가락하야 잠을닐코어두운속에 눈을뜨고 누엇섯다 한밤중이지나서 사방이고요한데 어듸서사람의말소리가 들리어서유복이가 귀를 기우리고 들으니 말소리가 안에서 나오는것이분명하얏다 사내소리와녀편네소리가 석기어나오는데사내소리는 나직나직하고 수가 적으나 녀편네소리는 새되고도 수다하얏다 처음에말은 돌나 알어듯기 어렵는것이 차차로 소리가 놉하커서녀편네말은 고사하고 사내말까지도 집작석거서 알어듯게되엇다

『내가 하두 부처님가트니까아무짓을 해두 조흘줄알구』

『부처님이면치성이나 들어오지 밥먹구 하는것이 무어야 큰소리만하면 뎨일인가』

『나이 사십이야 너무지각업시굴시말게』

『지각이 안낫스니 엇철테야지각난사람 다보앗서』

『말만 바터덤기면 장사냐거 가만이잇는사람을 왜글나』

『왜 이러케 큰소리야』

『누가 할소린지 큰소리 작작질러 어린애 잡 쐐겟서』

『커까지 자식 뉘 자식인가알어』

『더럽소리 업네 뉘자식인가몰으거든 가르쳐줄가 내배속으로 나온거야 내자식이야 이것은 둘립업지』

『뻔뻔한년 가트니』

『누구더러 년이래 말이면다 하는줄 알어 가치살기가 실커든 되지못하게 속에너코 우물거리지말고 사내답게 갈려 서자고 그래그러면 나는 이밤 이라도우리집으로 갈테야』

『글은놈하고 살가조케』

『러정만해 갈리선뒤에야 남이 누구하고 살건말건 걱정이 무어야』

그다음에는 밥먹말어커치는소리 어린아히우는소리 녀편네시악쓰는소리 여러소리가뒤석겨 들리엇다 유복이가 가만히생각하여보니 고서방내외씨이 큰커가 갈흔모양인데앗가 머슴들의 말과가티 광실싸지 난다하면 자긔가 살인옥사에 증인으로라도 붓잡혀갈것이 정한일이라 의외에 누어잇다가는 낭패볼것 이버로가래서 솔그머니 일어나서보따리를 차커들고 방문을 열리업시 여다치고 밧그로 나아왓다 처음에는 바로 큰꿀로 가라고 해주人길을차커나서다가 오밤人중에 길가는것이남에게 수상하게보일 념려가잇서서 밥을 고쳐먹고걸음을 돌치어서 다시 대상人집을 차커왓다 회토人불입해서밤새임하는사람들이 밤참을가지고 노름하다가 유복이 오는것을보고

『커이가 초커녁에 왓다간이안이라구』

『고서방 발어가든이로군』

하고 서로 짓거리고

『엇재서자지안쿠밤중에왓소』

하고 한사람이 뭇는것을유복이는 긴말아니하고

『새벽케사人밥 어더먹으러구왓소』

하고 대답한뒤곳 회토人불갓가히가서 안젓다

유복이가 여러사람들틈에석겨안커서 건밤을 새는동안에곱배짤이 오서방의 고모내외를 한번 차커보고갈맘이나서노름아니하는사람에게 말을물어서 오서방人집 가는길도알엇고 오서방의고모부는 벌서권에 작고하고 오서방의고모가 아들을다리고사는데 그집이, 오서방人집 이웃인것도알엇다날이 밝은뒤에 유복이는케사人밥으로 요긔하고 젊은주인을 차커서루두하 치사하고 대상人집에서나오며곳 오서방人집을 차커왓다 술어커가는 삼간초가에 울人타리와삽작문이 명색만잇서서 문밧게서 집안이 드려다보이엇다 마당에서 오서방이 한손으로비질하는것을 유복이가

『여보 오서방』

하고 불르니 오서방이 비를노코 나와서 유복이를 바라보앗다